

VOL. 2
2023. 2.

성신-임명섭

한국학 회보

Sungshin-Lim Myungsub

Journal of Korean Studies



성신-임명섭 한국학연구소

목 차

2023. 2. VOL.2



◆ 인도네시아 학생들의 눈빛 4

Eyes of Indonesian students

강진호 Jinho Kang

◆ 세계문학으로 가는 한국문학,
현황과 과제 6

Korean Literature Going Global,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곽효환 Hyohwan Kwak

◆ 성신여자대학교, 크로아티아
리예카대학교와
'리예카 세종학당' 개원 15

Sungshin Women's University and
University of Rijeka Open
King Sejong Institute in Rijekae

인쇄 · 발행일 2023년 2월

발행인 이성근 편집인 강진호

발행처 성신-임명섭 한국학연구소

주 소 서울 성북구 보문로34 다길2

성신여대 수정관B동 718호

인 쇄 제이앤씨

◆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이야기 18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at Universitas
Pendidikan Indonesia

신영덕 YoungDuk Shin

◆ 영국에서 한국학 강의를 듣다 25

Attending lectures on Korean Studies in England

박민영 MinYoung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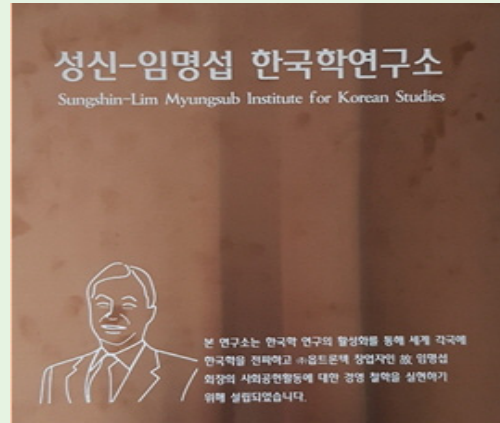
◆ 성신-임명섭 한국학연구소
설립 취지 31

Sungshin-Lim Myungsub Korean Studies
Institute establishment purpose and
research support

◆ 팔목시계, 차 보셨습니까? 32

Wrist Watch, have you worn one?

김일환 IHan Kim



◆ 한국문학 번역과 한국어 읽기 교육의 만남 36

Connecting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and Korean reading education

장미경 Mikyung Chang

◆ 한국어 교육에서 K-일상 교육을 위한 제언 43

Suggestions for K-Daily Educatio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이성희 SungHee Lee

◆ K-pop의 세계화 48

Globalization of K-pop

서민정 MinJung Seo

◆ 연구비 신청 안내 61

Research grant application guide

◆ 몽골의 현직 교원들의 한국어 교원 재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및 모의 시험 분석 결과(연구결과보고서 1) 53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re-education of incumbent Korean language teachers in Mongolia and Mock Test Analysis Results

Sainbilegt.D, Sarnai.B

◆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내포문 이해도 평가 연구(연구결과보고서2) 57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Vietnamese learners' understanding of Korean embedded sentence

Nguyen Thi Phuong Thu

◆ 성신-임명섭 한국학연구소 인문융합연구소 공동 심포지엄 60

인도네시아 학생들의 눈빛

작년 12월 인도네시아 텔콤 대학(TELKOM Univ.)과 교류 협정을 위해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기대 이상의 환대와 뜨거운 호응을 경험하며 놀랐던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다. 특히 대학 부속 고등학교에 초대를 받고 갔을 때 몰려든 학생들의 환호는 나를 매우 당황스럽게 했다. 그들은 한국에 대해 더 알기를 원했고 함께 사진 찍기를 원했다.



그런 뜨거운 관심의 배경에는 K-컬처 현상이 있었다.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한국 음악이 '그라미 시상식' 후보에 오르고, 한국 드라마가 '에미상'까지 받았다. K-컬처가 전 세계 문화의 중심에 서 있다. 외국의 상점에서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은 흔한 일이다. 텔콤 대학의 사례처럼 세계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과가 인기학과가 되어간다.

2023년 첫날 서울 주요 관광 명소에는 한국에서 새해를 맞이하려는 외국인들로 북적였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은 한국 드라마를 정말 좋아해서 꼭 와보고 싶었다고 말하고 있다. 고향에 있는 가족에게 영상통화를 하며 한국을 보여주는 외국인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베트남에서 왔다는 응우옌 씨는 한국 드라마를 정말 좋아해서 꼭 와보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야 왔다고 감격하는 모습이였다.

바야흐로 K-컬처는 전 세계 문화의 중심에 섰다. 한국 웹툰과 웹소설도 분야별 시장에서 쑥쑥 커가고 있다. 최근에는 K-클래식이라는 말까지 들려온다. 각종 음악 콩쿨에서 한국인이 1등을 휩쓰는 현상을 반영하는 말이다. 우리는 이런 시대의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 더 발전된 콘텐츠를 만들고 제공해야 한다.

'성신-임명섭 한국학연구소'는 K-컬처가 확산되고 뿌리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텔콤 대학 학생들의 눈빛이 떠오른다.

2023년 벽두에
소장 강진호



Eyes of Indonesian students

It happened when I visited for an exchange agreement with Telkom University in Indonesia last December. There were several moments when I was surprised by the hospitality and enthusiastic response that exceeded my expectations. In particular, when I was invited to a university-affiliated high school, the cheers of the students who gathered made me very embarrassed. They wanted to know more about Korea and take pictures together.

Behind such hot interest was the K-culture phenomenon. Korean films won awards at the Academy Awards, Korean music was nominated for the Grammy Awards, and Korean dramas even received the Emmy Award. K-culture is at the center of culture around the world. It is common for BTS songs to play in foreign stores. As in the case of Telkom University, departments that study Korean are becoming popular in the world. On the first day of 2023, major tourist attractions in Seoul were crowded with foreigners trying to welcome the new year in Korea. Foreigners who visited Korea due to the easing of COVID-19 quarantine measures are saying that they really like Korean dramas and want to come to Korea. There were many foreigners who showed atmosphere in Korea through video calls to their families in their hometowns. Mr. Nguyen, who said he came from Vietnam, really liked Korean dramas and wanted to come, but he seemed thrilled that he finally came because of the corona. Nguyen, who came from Vietnam, seemed thrilled because he loved Korean dramas and wanted to come to Korea for a long time after COVID-19 breakup, and he finally came here now.

K-culture has been at the center of culture around the world. Korean webtoons and web novels are also growing in markets by sector. Recently, there is even a word called K-classic. It reflects the phenomenon that Koreans sweep first place in various music competitions. We have to get on board with this trend of the times. We need to create and provide more advanced content.

The "Sungshin-Lim Myung-seop Institute of Korean Studies" aims to make best efforts to spread and settle K-culture. The eyes of Telkom University students come to mind.

At the beginning of 2023.

Kang Jin-ho (Director of Sungshin-Lim Myungsub Research Center)

세계문학으로 가는 한국문학, 현황과 과제

곽효환 | 한국문학번역원 원장, 시인

새로운 화두 아래 한국문학이 어느 때보다 활발히 세계와 소통하며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으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신한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K-무비, K-팝, K-드라마, K-웹툰, K-푸드 등 다양한 한국문화콘텐츠가 역동적이고 전 방위적으로 물결치는 가운데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문학시장에서 주목 받으며 독자들에게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세계무대에서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은 과거와 같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구체적인 징후들을 수반하고 있다. 2022년 현재 해외에서 출간된 한국문학은 한국문학번역원을 통해 약 1,750종, 대산문화재단을 통해 300여종에 달한다. 여기에 그 이전에 문예진흥원(현 예술위원회) 등을 통해 출간된 것을 합하면 약 2,500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로 두 기관의 통계를 보면 외국어로 번역, 해외에서 출간되는 한국문학 작품 수와 언어권, 출간양 등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간 200종이 넘는 한국문학 작품의 해외 출간 ▲해외출판사나 에이전시의 선 저작권 계약 체결 이후 해외 출간되는 작품의 급속한 증가 ▲작가들의 해외 판권 선인세 규모 증가 ▲누적 판매량 및 10개 국어 이상 다언어 출간 작품 증가 ▲해외 주요 언론 및 매체의 리뷰, 기사 지속 증가 ▲계속되는 해외 국제문학상 입후보 및 수상 등 구체적인 사례들이 문학한류 또는 K-문학의 가능성을 뒷받침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1차적으로 신한류라는 큰 흐름 속에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한류의 원천이자 핵심이 되는 K-문학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오랫동안 축적해온 한국문학의 다양성과 역동성이 더해지면서 한국문학은 어느 때보다도 세계시장에서 주목받으며 활발히 소통하고 교류하는 데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과거 경험을 토대로 한류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K-문학의 역할이다. 실제로 1990년대 말 시작되어 2000년대 중후반 정점을 찍고 쇠락을 경험했던 ‘한류’의 경험은 유행이나 현상이 아닌 뿌리 깊은 문화콘텐츠로 한국의 예술문화가 자리 잡고 세계인들에게 폭넓게 공유되고 지속적으로 향유되어야 한다는 교훈과 과제를 남겼다. 한류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마르지 않는 강물이 되어 세계문화의 중심에 오랫동안 흐르며 확고히 자리 잡게 하기 위해 예술문화의 핵심이자 원천 콘텐츠인 문학의 역할과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한 시대와 집단의 정신적 결정체이자 삶의 지형도가 문학이라고 할 때 문학작품의 번역, 출판은 우리



의 삶과 사유와 가치를 가장 온전히,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인식론적 체계에 깊이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문학이 해외에 소개된 역사는 1889년 미국 푸트남출판사에서 『Korean Tales 한국민담집』이 처음 소개된 이래 130년을 훌쩍 넘어섰다. 또한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한국문학 해외소개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진 것은 1974년 문예진흥원이 ‘한국문학 번역지원 사업’을 시작하고 그 첫 결과물로 황순원 단편소설집 『The Star 별』이 1980년 홍콩 하이네만아시아출판사에서 출간된 이래 40여년이나 되었다. 이 같은 연륜이 쌓이면서 한국문학은 ‘서구의 호기심 대상 → 자발적 한국문학 해외소개 → 정책적 한국문학 해외소개 → 한국문학의 세계화’라는 과정을 거치며 꾸준히 해외의 독자와 문학계로부터 주목받아왔다. 여기에 최근 신한류라는 큰 흐름과 맞물려 세계문학의 중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2022년 초 발표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을 받아 해외에서 출간된 한국문학에 대한 판매현황 조사 결과’는 세계시장에서의 한국문학의 위상과 앞으로의 가능성을 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조사대상 658종(37개 언어권) 가운데 492종(30개 언어권)이 응한 결과를 보면 일역판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이 20만부 이상 그리고 다른 10개 언어권까지 합하면 30만부 이상 판매되었고,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13개 언어권에서 16만부 이상, 일역판 손원평의 『아몬드』가 9만부 이상 판매되는 등 여러 작품이 베스트셀러와 스테디셀러의 반열에 올라 있다. 이 기간에 출간된 34종이 누적판매부수 5천권을 넘었고 출간이후 판매부수가 2만~10만부에 이르는 작품이 수십 종을 넘어서는 등 해를 더 할수록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수준의 작가의 반열에 올랐음을 가능하는 기준인 2만 달러 이상의 해외 판권 선인세를 받는 작가(작품)가 여러 명 등장하고 이들의 작품이 다양한 언어권에서 경쟁적으로 출간되어 보다 많은 독자들을 폭넓게 만나고 있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 2022 보고타도서전 한국주빈국 개막식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번역된 한국작품 또는 작가의 해외 문학상 수상은 더 이상 놀랍거나 신기한 소식이 아니다. 2016년 영역판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수상한 이래 매년 4~5개의 해외문학상 수상소식이 이어지고 그보다 많은 작가(작품)들이 수상후보에 오르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문학 해외출간 도서의 양적, 질적 신장이 눈부시다. 2021년 번역권 지원을 통해 해외에서 출간된 한국문학 작품이 186종인데 여기에 민간인 대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출간된 도서를 포함하면 연간 200종 이상이 해외에서 출간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해외에서 출간되는 도서양은 최근 5년 동안 매년 10% 이상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볼 때 수년 내 연간 300종 이상의 한국문학작품이 세계 각지에서 출간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할 것은 이들 도서의 75% 이상이 해외출판사에서 먼저 저작권계약을 체결한 다음 지원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한국문학이 해외 독자와 출판계에 안착하여 출판시장의 니즈에 따라 양적, 질적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해외 출판계와 문학시장의 관심 제고 → 한국문학작품 번역, 출판 증가 → 한국문학에 대한 해외 언론보도 증가와 주요 국제문학상 수상 → 현지 시장(독자) 수요 확대 → 한국문학의 세계출판 시장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한국문학은 ‘문학한류 도입기’에 진입해 있고 다음 단계인 ‘문학한류 성장기’로 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것을 세계에 알리고 전달하고 싶다는 열망의 발화인 ‘한국문학의 해외소개’ 또는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넘어서 세계문학의 중심에서 그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을 지향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몇 년 동안이 그에 걸맞은 준비를 하고 필요한 일들을 추진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이 맞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는 한국문학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 수립 ▲한국문학 번역출판교류에 관한 정보를 집성, 체계화하고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을 추진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 ‘KLWAVE’ 구축 ▲한글문학확산과 한국어문학 저변확대를 위한 디아스포라 한글문학 웹진 《너머》 발간 ▲전문 번역인력의 체계적 육성과



▲ 2022 보고타도서전 한국주빈국 개막식

해외 한국문화 포스트 구축을 위한 번역대학원대학교 개설 등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진행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문학은 시, 소설, 희곡, 비평, 수필이라는 고전적인 정의를 넘어서 급변하는 문화 환경에 부응하여 문학은 '문자로 이루어진 예술문화 텍스트'라는 도전적인 정의를 바탕으로 한국문학번역원의 나아갈 방향을 확장하고 새롭게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고민도 하고 있다.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을 위해 현재 한국문학번역원이 준비, 추진하고 있는 주요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 한국문학 맞춤형 해외 진출 전략 수립

1. 목적

- 해외 주요 국가와 언어권의 문학·출판시장 분석을 토대로 한 한국문학 해외 진출 맞춤형 전략 수립, 시행

2. 주요내용

- 해외 문학출판시장 심층 분석 : 해외 중점 진출국가 및 권역별 거점국가 문학·출판시장 매커니즘 및 현황 조사
 - * 중점 진출국가(8개국)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중국, 일본, 러시아
 - * 4개 권역 : 동남아시아, 중남미, 중앙아시아, 중동·북아프리카(권역별 거점국 1~2개 선정)
- 해외출판사 역량조사 : 해외 우수출판사 선정 기준 마련 및 신규출판사 발굴, 지표개발 통한 출판사 평가체계 도입
- 해외 한국문학 친화지수 개편 : 해외 한국문학 수용도, 시장 선호도, 권역 내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량지표 개발 및 국가유형화 산식 개편
- 해외출판시장 진출확대 전략 및 로드맵 도출 : 국가별 문학시장 진출우선도, 시장선호에 따른 맞춤형 전략 수립

3. 기대효과

- 해외 문학출판시장 실태조사에 바탕한 한국문학 번역출판교류 지원 전략 수립, 시행 및 해외 문학한류 성장기반 구축
- 국가/권역별 해외 우수출판사 기준 정립과 신규출판사 발굴 통한 한국문학 해외시장 확장

■ 한국문학 해외 진출 활성화 디지털플랫폼 KLWAVE(Korean Literature WAVE) 구축

1. 목적

- 전 세계적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흐름에 부응하는 한국문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사업 플랫폼 및 한국문학번역·출판·교류 정보시스템 구축

2. 주요내용

- 한국문학 번역, 출판, 교류를 위한 작가/작품 소개, 해외 언론보도 및 리뷰, 국내외 출판사 정보 등 상시 제공
- 국내외 출판관계자(에이전시)포함 문학저작권 정보 교류 및 소통
- 해외 소개된 작가 및 작품 정보 안내
- 언어권별 번역가 정보 제공
- 한국문학 콘텐츠 제공 : 한국문학번역원 발간 매거진(《KLN》, 《너머》), 고전문학 전자책, 해외 한국문학번역서 리뷰 및 큐레이션 콘텐츠 등
- 국내외 주요 문학행사 소개 및 온라인 행사 개최
- 한국문학번역원 지원사업 온라인 운영체제 도입

3. 구축시기 : 2022년 11월14일 개통

4. 기대효과

- 국내외 출판관계자 및 번역가, 연구자, 독자 등에게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한국문학 저작권 거래 활성화 및 정보 개방
- 다양하고 깊이 있는 한국문학과 문화 콘텐츠를 제공을 통해 전 세계의 한국문학과 문화 향유층 유입

■ 디아스포라 한글문학 웹진 《너머》 발간

1. 목적

- 국내외 다양한 한글창작 공동체 발굴과 지원을 통한 한글 글쓰기 및 한국어문학 저변 확대

2. 주요 내용

- 해외 한인문학 및 국내외 디아스포라 문학 웹진 계간 발간
- 제호 : 디아스포라 웹진 《너머》
- 참여 필자 : 해외 교민 작가, 재외동포(자이니치, 조선족, 고려인 등) 작가, 탈북 작가, 한글로 창작하는 외국인, 국내 작가 등
- 웹진 《너머》 구성 : 디아스포라 문학에 대한 특집, 소설 시 산문 등 신작, 국내외 디아스포라 문학작품 읽기, 디아스포라 문학현장 탐방, 디아스포라 작가 열전, 디아스포라 포토에세이, K-문화 리뷰 등
- 《너머》 신인문학상 제정, 운영 : 디아스포라 한글 신인작가 발굴, 육성
- 이산문학 아카이브 구축 : 한인 디아스포라 문학자료, 영상 콘텐츠 및 관련 콘텐츠 아카이빙
- 편집위원 : 이형권(위원장, 평론가, 충남대 교수), 고명철(평론가, 광운대 교수), 김환기(번역가, 동국대 교수), 윤의섭(시인, 대전대 교수), 정은경(평론가, 중앙대 교수), 홍용희(평론가, 경희사이버대 교수)
- 2022년 11월 겨울호 창간



▲ 디아스포라 웹진 메인화면

3. 기대효과

- 디아스포라 문학 관심 제고 : 디아스포라 문학 창작 활동 및 교류 활성화 촉진을 통한 한글문학 활성화 및 한국문학 범주 확장
- 문학 콘텐츠 수집 및 확산 : 디아스포라 문학 유산 수집 및 온라인 아카이빙을 통한 콘텐츠 확산성 강화

■ 한국문학번역원 번역대학원대학교 설립

1. 목적

- 한국문학 및 한국어콘텐츠의 지속적·체계적 해외 확산을 뒷받침하는 원어인 전문번역 인력 양성
- 한국문화 확산을 위한 해외 민간포스트로서 친한(親韓) 인사 육성 토대 구축

2. 주요내용

- 원어인 번역가 양성을 위한 번역 전문대학원
- 한국문학, 예술문화콘텐츠 석사과정(향후 박사과정 개설)
 - * 한국문학과 한국문화콘텐츠 통합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가진 우수한 번역가 양성



▲ 2022 번역아카데미 문학기행 및 수료식

- 입학정원 80명, 재학정원 160명
- 개설학과 : 영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7개 언어(수요에 따라 언어권 확대)
- 2025년 개교 목표

3. 기대효과

- 한국문학 및 한국어예술문화콘텐츠에 대한 전문적 소양을 갖춘 원어민 번역가 양성 및 글로벌 한국전문가, 민간 한류포스트 체계적 양성
- 문화예술 상상력의 원천으로서의 한류콘텐츠 가치 발굴·소개 및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갖춘 원어민 인재 양성

* 이 글은 국제펜 한국본부가 2022년 11월 개최한 제8회 세계한글작가대회에서 발표한 기조발표문 「세계 문학과 소통하는 한국문학」을 개고한 것임.

Korean Literature Going Global,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Kwak Hyo-hwan | President of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of Korea, Poet

Korean literature is gaining new spotlight and taking a leap to establish itself in world literature by communicating actively with the global community than ever before. As “New Hallyu,” representing various Korean cultural contents namely K-movie, K-pop, K-drama, K-webtoon and K-food, are flooding in all directions, Korean literature is attracting renewed attention and gaining surge of interest from readers in the global literature market.

Korean literature in the limelight does not reflect vague expectations as in the past; it is accompanied by concrete signs. As of 2022, Korean literature published globally by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of Korea total up to 1,750 and 300 published by The Daesan Foundation. By adding those previously published by the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the total number of publications is estimated to surpass 2,500. Comparative statistics between the two institutions show steady increase in translations of Korean literary works, number of translated languages, as well as the volume of Korean literature published abroad.

▲Over 200 types of Korean literary works are published annually overseas ▲Surge of publications that have signed copyright contracts with international publishing companies and agencies ▲ Rise of Korean authors receiving royalty in advance for publication rights ▲ Increase in cumulative sales and literary works published in more than 10 languages ▲ Increase in number of articles and reviews by mainstream media and press ▲ Continuous nomination and awards from various international literary awards. These concrete achievements are testament to the “Hallyu of Korean literature,” or “K-literature” and its potential.

An important point of discussion is the role of K-literature in taking away lessons from the past and preparing for the future of Hallyu. When “Hallyu” from the late 1990’s declined after its peak in mid to late 2000’s, it branded a lesson that experiencing “Hallyu” must go beyond being a trend or a temporary phenomenon and that Korean cultural contents should be widely shared and enjoyed continuously by the global community. In order for Hallyu to firmly take root and establish itself as a cultural wellspring in the global stage, the role and importance of literary works, which are the core and source of art and culture, must be addressed.

More than 13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first international debut of the Korean literary work titled “Korean Tales,” introduced in 1889 by the Putnam Publishing Group in the United States. Then in 1974, a new policy called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Program” from the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enabled more Korean literary works to be introduced abroad, and “The Star” was published in 1980 by the Heinemann Asia

Publishing, Hong Kong. Over 40 years have passed since then, and these experiences have shifted Korean literature in the following stages: an object of curiosity from the West → voluntary presentation of Korean literature in the global market → enforcing policies to present Korean literature in global market → globalization of Korean literature. Through this progress, Korean literature received steady attention from readers and literary field. “New Hallyu” is taking Korean literature to a new level, towards the center of world literature.

Analysis results announced in early 2022 on the ‘Sales Volume of Korean Literature Published Abroad from 2016 to 2020 with the Support of the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Korea’ are evident of the growing reputation and potential that Korean literature is bringing to the global literary scene. Out of the 658 books translated in 37 languages, 492 books in 30 languages that had relevance to the analysis were examined. The Japanese-translated version of “Kim Ji-young, Born 1982” written by Cho Nam-joo has sold more than 200,000 copies, totalling 300,000 copies including translations in 10 other languages. Han Kang’s “The Vegetarian” has sold over 160,000 copies in 13 languages and the Japanese-translated version of Sohn Won-pyung’s “Almond,” has sold more than 90,000 copies. Korean literature continuously ranks as best and steady seller, and during this period, 34 books have exceeded 5,000 in sales and scores of other books have sold between 20,000 to 100,000 copies; these numbers are growing every year.

Evidently, it does not come as a surprise that Korean literature translated into foreign languages or Korean authors are winning international literary prizes. The English version of “The Vegetarian” by Han Kang was awarded the 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 in 2016. Since then, 4–5 Korean literary works have received literary awards every year, and many more works and authors have either won or have been nominated for various literary awards.

Noteworthy achievement is that both quality and quantity of Korean literary works being published abroad is showing remarkable growth. There were 186 Korean literary works published abroad through the support from the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of Korea; considering the books published by private grant from The Daesan Foundation, more than 200 books have been published outside of Korea. The number of books published overseas has been increasing by more than 10% every year for the past five years, and it is expected that more than 300 Korean literary works will be published annually in various parts of the world within the next few years.

To summarize, Korean literature is passing through Hallyu K-literature “Adaptation” stage and pressing on towards “Growth” stage. This means, going beyond introduction or globalization of Korean literature and positioning Korean literature as part of the central global literary scene.

Therefore, it would be crucial for the next consecutive years to prepare accordingly for the next stage of K-literature Hallyu.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of Korea is in preparation or already pursuing the following areas: ▲ Plan strategies to export Korean literature adapting to new literary environment ▲ Systemize information on translation/publication of Korean literature and create ‘KLWAVE’ global digital platform ▲ Publish <Neomeo> webzine to promote and expand Korean literature globally ▲ Open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to foster professional translators and prepare grounds for Korean culture to be promoted abroad

성신여자대학교, 크로아티아 리예카대학교와 ‘리예카 세종학당’ 개원



▲ 성신여대 돈암 수정캠퍼스



▲ 리예카대학교

세종학당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세종학당재단 지원으로 전 세계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보급하기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이다. 2007년 최초로 설립된 ‘몽골 울란바토르 세종학당’을 시작으로 현재 84개국 244개소의 세종학당이 운영되고 있다.

성신여자대학교는 지난 6월, 2022년 신규 세종학당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어 2015년 출범한 중국 스자좡 세종학당에 이어 크로아티아 리예카대학교에 본교 두 번째 세종학당을 신규 설립하게 되었다. 신규 세종학당 공모에는 39개국 82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심사를 거쳐 19개국 23개소가 최종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한국·크로아티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성신여자대학교와 리예카대학교의 협력으로 ‘리예카 세종학당’을 개원하게 되어 의미를 더했다. 리예카대학교는 크로아티아의 고등교육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교육기관 중 하나로, 크로아티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리예카대학교는 세계대학랭킹센터(CWUR)에서 발표한 ‘2021~2022년 세계대학순위’에서 전 세계 참여 대학 19,700여 개 중 상위 8%, QS(Quacquarelli Symonds)에서 발표한 ‘2021년 세계대학평가’에서 18,000여 개의 참여 대학 중 상위 4.5%~ 5.5%를 차지할 정도로 국제적인 인지도와 경쟁력을 갖춘 명문대학이다.

2022년 9월 19일, 성신여자대학교는 크로아티아 리예카대학교의 아울라 마그나 홀에서 ‘리예카 세종학당’ 개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개원식에는 이성근 성신여대 총장을 비롯하여 홍성욱 주 크로아티아 대사, 마르코 필리포비치 리예카 시장, 스네자나 프리이치 사마르지야 리예카대학교 총장, 마르타 주비치 리예카대학교 부총장겸 리예카세종학당장, 센카 마체시치 리예카대학교 부총장, 정종권 세종학당재단 학당사업본부장 등 주요 인사 및 리예카 세종학당 한국어 교원들이 참석하여 리예카 세종학당의 출발을 축하하였다.



▲ 성신여대, 크로아티아 ‘리예카 세종학당’ 개원식

왼쪽부터 이성근 성신여대 총장, 마르타 주비치 리예카대학교 부총장겸 리예카 세종학당장, 센카 마체시치 리예카대학교 부총장, 스네자나 프리이치 사마르지야 리예카대학교 총장, 홍성욱 주 크로아티아 대사, 정종권 세종학당재단 학당사업본부장

개원식 이후 운영된 리예카 세종학당 첫 가을학기 한국어 프로그램은 최종 수강 인원 40명을 돌파할 정도로 한국어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하였다. 본교 뷰티산업학과와 연계한 K-뷰티 체험 학습과 태권도진흥재단 봉사단원과 함께 진행한 태권도 워크숍은 세종학당 수강생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남녀노소가 모두 참가하여 한국 문화를 경험하였다.

스자창 세종학당을 7년째 운영해온 노하우를 활용함과 동시에 리예카대학교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리예카 세종학당이 지역사회, 나아가서 크로아티아와 동유럽의 한국어·한국문화 전파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Sungshin Women's University and University of Rijeka Open King Sejong Institute in Rijeka

King Sejong Institute (hereinafter KSI) is a public educational institution established by the Korea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King Sejong Institute Foundation, which aims to provide standardized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promote Korean culture all over the world. Beginning with the first KSI launched in Ulaanbaatar, Mongolia in 2007, there are currently 244 KSI's operating in 84 different countries.

In June 2022, Sungshin Women's University (hereinafter Sungshin) was selected by the Ministry to open King Sejong Institute in Rijeka, which will be the second KSI to be established after KSI Shijiazhuang in 2015. The new KSI Rijeka will be in cooperation with University of Rijeka (hereinafter UNIRI) and will be established on UNIRI campus. Total of 23 new KSI's from 19 countries were selected out of 83 candidates from 39 countries who participated in the 2022 call for applications.

Opening of KSI Rijeka, together with Sungshin and UNIRI, added significance to the 30th anniversary of Korea-Croatia diplomatic relations. UNIRI is Croatia's second largest university and a leading institution for higher education. UNIRI ranks in the top 8% out of 19,700 participating universities worldwide in the '2021-2022 Center for World University Rankings (CWUR)' and top 4.5% to 5.5% out of 18,000 participating universities in the 'Quacquarelli Symonds (QS) 2021 World University Rankings,' a testament to UNIRI's international recognition and renown.

On September 19th, 2022, Sungshin and UNIRI hosted the opening ceremony of King Sejong Institute in Rijeka at the UNIRI Aula Magna Hall. President Seong Keun Yi of Sungshin, Rector Snježana Prijic-Samaržija of UNIRI, Vice Rector Marta Žuvić, who is the Director of KSI Rijeka and Vice Rector Senka Maćešić welcomed the distinguished guests H.E. Sung-Wook Hong,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Republic of Croatia, Marko Filipović the Mayor of Rijeka and Jongkwon Jeong, Director General of King Sejong Institute Foundation who attended the ceremony to celebrate the new beginnings of KSI Rijeka.

Enrollment for the 1st Korean language courses to begin at KSI Rijeka in October 2022 surpassed 40 students, which reflected the rising demand and interest for Korean language in the Rijeka region. The K-Beauty Class held in cooperation with Sungshin's Department of Beauty Industry and Taekwondo workshops organized with volunteers from the Taekwondo Promotion Foundation attracted KSI Rijeka students, as well as men and women of all ages from the local community who were able to experience Korean culture firsthand.

By closely cooperating with UNIRI and enhancing the 7-year know-how accumulated from running KSI Shijiazhuang, Sungshin has proud expectations that KSI Rijeka will serve as a pillar to promot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in Croatia, and all the way to Eastern Europe and beyond.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이야기

신영덕 |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 교수

1. 들어가는 말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UPI)는 1954년에 설립되었다. 초중고 교사들을 양성하고 있는 이 학교는 우리나라 교원대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사, 석사, 박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국립종합대학교이다. 주 캠퍼스는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의 반둥에 있으며, 지방에도 5개의 캠퍼스가 있다.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학교 내 언어교육원(Balai Bahasa)에서 한국어를 가르쳐 왔다. 그러다가 2013년 인도네시아 교육부에 의해 한국어가 인도네시아 고등학교의 정식 외국어 과목으로 지정되자,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의 전 총장 수나르요 교수(Prof. Dr. H Sunaryo Kartadinata, M.Pd.)는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에 한국어교육학과를 개설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2015년 8월 5일에는 재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한국국제교류재단(KF), 한국국제협력단(KOICA), 재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등의 지원과 전 총장 후르곤 교수(Prof. H. Furqon, M.A., Ph.D.)의 승인을 통해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가 공식 개설되었다.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에서는 한국어교육학과를 개설한 후, 2017년에는 한국학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이후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는 인도네시아의 한국어교육과 한국학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이 글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고자 한다.

2. 한국어교육학과 개설과 해외 한국학 씨앗형 사업

나는 한국국제교류재단 해외 대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서 2009년 2월 인도네시아대학교(UI) 객원교수로 파견되었다. 인도네시아대학교 객원교수로 6년간 활동한 후 나는 2015년에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UPI) 초빙교수로 임명되었다.

내가 자리를 옮기게 된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2014년 말경 잘 아는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반둥에 있는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에서 한국어교육학과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와서 도와줄 수 있는냐는 내용이었다. 나는 흔쾌히 그리하겠다고 했다.

당시 나는 인도네시아대학교에서의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고 있었다. 한국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외국 대학에 지원할 것인가 생각이 많았다. 아내는 84세의 노모를 모시고 다른 외국으로 가는 것은 힘들다고 했다. 그런데 마침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며칠 후 나는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를 찾아가서 디디 수끼야디 어문학부 학장(현재 부총장)을 만났다. 그는 한국어교육학과를 개설하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냐고 했다. 내가 기꺼이 도와드리겠다고 했더니 보수 문제를 이야기했다. 나는 일단 재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한국국제교류재단(KF), 그리고 한국국제협력단(LOICA) 등에 도움을 요청해 보자고 조언했다.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 한국어교육과는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곳이라 한국에서도 지원해 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후 나는 디디 학장님과 함께 재인도네시아 한국대사와 한국국제협력단장을 직접 만나서 상황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한국국제교류재단에도 이 사실을 알렸다. 다행히도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얼마 후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는 객원교수 1명, 한국국제협력단에서는 한국어 전공 단원 1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는 나에게 객원교수로 파견되고 싶으면 선발 시험에 다시 응시하여야 한다고 했다. 나는 2015년 6월경에 선발 시험에 응시하였다. 선발된 후에는 7월에 반동으로 이사했다.

당시 한국어교육학과에서는 한국인 강사 3명을 현지 채용했다. 이렇게 해서 인도네시아인 교수 1명(학과장)과 한국인 교수 5명이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후 우리는 커리큘럼을 만들고 수업 계획도 하였다.

그런데 8월 초가 되어도 학과 설립은 공식화되지 않았다. 8월 5일 총장 선거가 끝나야 가능하다고 했다. 총장 후보 중 한 분은 한국어교육학과 개설을 찬성하고 있지만, 다른 한 분은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9월부터 학기가 시작되는데 학과 설립 자체가 불확실하다고 하니 불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행히 찬성하는 분이 총장으로 선출되어 한국어교육학과 개설이 정식으로 확정되었다. 이후 한국어교육학과에서는 3일 동안 면접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했다. 당시 선발된 학생들은 모두 53명이었다.



▲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개설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 어문학부에는 한국어를 비롯하여 인도네시아어, 영어, 일어, 불어, 독어, 아랍어, 순다어(인도네시아 순다족의 언어) 등의 전공학과가 있다. 과거에는 영어교육학과와 일본어교

육학과의 인기가 제일 많았지만, 최근에는 영어교육학과와 한국어교육학과가 가장 인기가 있다. 이것은 한국어교육학과의 입학 경쟁률이 20~30대 1이 된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한국어교육학과는 신생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활동을 통해 두각을 드러냈다. 학생들은 여러 가지 대회에서 상을 받았고, 교수들은 이를 위하여 학생들을 전심으로 도와주었다. 그런데 신생 학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의 지원이 필요했다. 그래서 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2017 해외 한국학 씨앗형 사업>에 지원하였다. 다행히도 사업계획서가 선정되어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에서는 매년 4,700만원 정도의 금액을 3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연구책임자였던 나는 이 사업을 통해 한국학연구소를 설립하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우수 학생에게 근로장학금을 수여하고, 매년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 한국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또 한국 관련 논문도 작성하여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후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였다.

3. 한국학연구소 설립과 주요 행사 내용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 한국학연구소는 2017년 10월 9일에 개설되었다. 이 연구소의 설립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학중앙연구원의 “2017년 해외 한국학 씨앗형 사업(사업책임자 신영덕 교수)”에 의해 이루어졌다. 한국학연구소의 설립 목적은 대외기관 및 학술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한국학 발전을 도모하는 데 두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학연구소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첫째, 빠르고 안정된 인터넷 설치를 통해 교수와 학생들의 한국학 관련 자료 검색 편의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국 관련 도서와 멀티미디어 자료(교육 영화, 드라마 등)를 확보 설치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한글 워드를 연습하거나 과제 작성 등의 용도로 연구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학술행사 개최를 통해 한국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연구 결과를 공유하였다. 그리고 2018년 3월에는 <인도네시아 한국어교육자 협회>를 결성하여 한국학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셋째, 한국학 관련 연구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학술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게재하였으며, 인도네시아어로 된 한국학 관련 교재를 개발 출판함으로써 한국학연구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 한국학연구소 개최 행사 모습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 한국학연구소는 이처럼 다양한 사업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한국학 발전을 꾀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2017 해외 한국학 씨앗형 사업'이 끝난 이후에는 별다른 사업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학 사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학연구소의 주요 사업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사업 목표 달성 결과(횟수, 년도)
한국학 강의 개설	한국사, 한국문학 강좌 개설
한국학 센터 신규 설립	한국학연구소 설립(2017)
장학금 지원	장학금 2회 지급(연구보조원 2명, 2017. 2018)
도서 출판	인도네시아어로 된 교재 2권(한국사이해, 한국문학이해) 출판
논문 게재	국제학술지에 한국학 논문 2편 게재
컨퍼런스	3회(2017, 2018, 2019)
워크숍	3회(2017, 2018, 2019)
인도네시아 한국어 교육자 협회 결성 및 창립 총회 개최	1회(2018.3)

4. 나가는 말

인도네시아의 한국학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학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학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지만 아직 많이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인들의 한국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매우 고무적이다. 인도네시아의 대학에 개설된 한국학과에 우수한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고 졸업 후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학 발전을 위한 적절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인도네시아의 한국학은 매우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 본관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at Universitas Pendidikan Indonesia

Shin Young Duk | Professor of Universitas Pendidikan Indonesia

1. Foreword

Universitas Pendidikan Indonesia (hereinafter UPI) was founded in 1954. UPI is a comprehensive, national university that cultivates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 and offers bachelor's, master's and doctorate degrees, comparable to that of universities of education in Korea. UPI's main campus is located in Bandung, West Java and five other campuses are located in the provinces.

Since 10 years ago, I have been teaching Korean language at the UPI Balai Bahasa (language center). Upon Korean Language being selected in 2013 as the official second language to be taught in Indonesian high schools, UPI former President Prof. Dr. H Sunaryo Kartadinata began to establish the new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On August 5th 2015,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was officially opened after approval of the former President Prof. Dr. H. Furqon and with support from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Republic of Indonesia, Korea Foundation (KF),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and the Korean Culture Center of Indonesia.

After opening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UPI established the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on campus. This article explores how UPI has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Korean studies in Indonesia.

2. Opening of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Seed Program for Korean Studies

Through the KF Support Program for overseas universities, I was appointed as Visiting Professor at Universitas Indonesia (UI) on February 2009. After 6 years of teaching at UI, I came to Universitas Pendidikan Indonesia to teach as Guest Professor in 2015. Moving to UPI was not foreseen. I received a call from an acquaintance during the end of 2014, asking me if I could help with opening the new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t UPI. I accepted this request.

A few days after, I went to visit Prof. Dr. H. Didi Sukyadi of UPI who was the Dean of Faculty of Language and Literature Education at the time (currently the Vice Rector for Education and Student Affairs). He asked me if I could assist in opening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my answer was certainly a big "Yes."

He was concerned about my salary; I proposed that we contact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Republic of Indonesia, Korea Foundation (KF) and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for support in this matter. As the goal of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s to raise up Korean language teachers, I reasoned that it was in line with the grant programs offered in Korea.

Afterward, Dean Sukyadi and I visited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Republic of Indonesia and also contacted KF regarding this situation. In due time, KF offered to dispatch 1 visiting professor and KOICA sent 1 staff who has majored in Korean language studies. KF informed that I must participate in the recruitment process to become a KF visiting professor, which I did in June 2015. After getting selected, I relocated to Bandung in July of that year.

At the time,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hired 3 Korean language instructors living in Indonesia. In total, 1 Indonesian department chair professor and 5 Korean professors took charge of the department and we collaborated to build academic curriculum and course plans.

UPI Faculty of Language and Literature Education offers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well as majors in languages including Indonesian, English, Japanese, French, German, Arabic and Sundanese (language of the Sunda people). In the past, English Education and Japanese Language Education were the top majors, but these days English Education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are the most popular among students. Acceptance rate for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s 20~30 to 1, and that explains it all.

Even as a newly-established department, Korean Language Education actively made distinguished progress. Students received various awards and professors were behind them to give full support. Still, support from outside was needed to develop this new department: in response, I applied for the <2017 Seed Program for Korean Studies>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UPI was fortunate to have been selected for this program and receive a grant of 47 million KRW annually for 3 consecutive years.

3. Establishment of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and Main Activities

UPI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opened on October 9th, 2017. The basis for the new Institute stemmed from the <2017 Seed Program for Korean Studies>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lready mentioned in the above passage. The Institute aims to develop Korean studies in Indonesia through cooperation with academic organizations and external institutions. A variety of projects were implemented to reach this goal.

First project to note is the installation of fast and stable internet, which facilitated professors and students in searching for Korean studies-related materials. We secured relevant books and multimedia (educational movies, dramas, etc) to provide better understanding of Korea and made Institute facilities available to students who wish to practice typing Hangul or work on assignments. Second, <Association of Korean Language Teachers in Indonesia> was formed in March 2018 to cooperate and find ways to develop Korean studies. Third, we published research papers in international journals through support provided for Korean studies research and published textbooks in Indonesian language on Korean studies, thereby establishing the foundations for relevant research.

UPI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has made numerous effort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in Indonesia through these projects. However, no distinct programs have been implemented after completion of the <2017 Seed Program for Korean Studies>. Realistically, the budget was insufficient to maintain these programs. Below is the summary of the major projects run by UPI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Type	Achievements and Results (number of times, year)
Open Korean language course	Korean history, Korean literature courses open
Open Center related to Korean studies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is established (2017)
Scholarships	Scholarship awarded to 2 people' (2 research assistants – 2017, 2018)
Publication	2 textbooks in Indonesian language (Understanding Korean History, Understanding Korean Literature)
Journal	2 academic papers published in international journals
Conference	3 times (2017, 2018, 2019)
Workshop	3 times (2017, 2018, 2019)
Form <Association of Korean Language Teachers in Indonesia> and host Inaugural Meeting	1 time (20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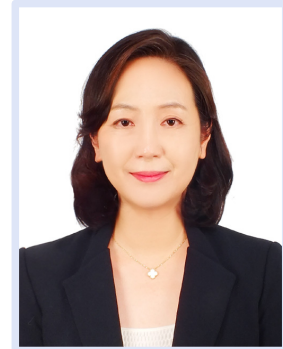
4. Epilogue

Korean studies in Indonesia is currently in its beginning stage. Infrastructures in education would be necessary for proper development Korean studies; there is still much room for improvement. However, it is encouraging to note the interest and passion that Indonesian people have for Korean studies. Many outstanding students are applying for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a considerable number of students are studying in Korea after graduation. Therefore, I believe that Korean studies in Indonesia will experience accelerated growth if more funds were provided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Korean studies.

영국에서 한국학 강의를 듣다

박민영 | 성신여대 교양학부 교수

광화문 광장에 수많은 촛불이 켜지던 그해 겨울, 나는 런던에 있었다. 연구년을 맞아 소아스 런던대학교에 방문학자로 체류하던 그때, 영국의 K-컬처 열풍은 대중문화와 예술 전반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집 앞의 커존(Curzon) 영화관에는 <곡성>에 이어 <아가씨>가 한 달이 넘게 걸려 있었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오데온(Odeon) 극장에서는 런던 아시아 영화제 개막작으로 <밀정>을 상영했다. 동아시아 영화제 세미나에는 일본군 위안부 소재의 영화 <귀향>의 조정래 감독과 손숙 전 장관이, 런던 한국 영화제 세미나에는 영화 <아수라>의 김성수 감독과 정우성 배우가 참석했다. 한국 관련 문화 이벤트라면 어디서나 인산인해였다.



“당신 도깨비 좋아해? 난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함께 방문학자로 가깝게 지내던 교수가 이웃에게 들었다는 말이다. 고블린도 몬스터도 아닌, 발음도 정확하게 ‘도·깨·비’라고 말하더라. 아닌 방중에 웬 도깨비? 그나 나나 텔레비전 드라마에는 별 관심이 없었기에, 같이 검색하고 나서야 당시 한국에서 방영되던 드라마 제목임을 알았다. 셰익스피어와 제인 오스틴의 나라에서 한국 드라마 <도깨비>에 열광하는 중년의 여인을 보며 우리는 머지않아 불어닥칠 유럽에서의 K-컬처 열풍을 예감했다.

1. 소아스의 한국학센터

소아스(SOAS,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는 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학 연구를 특화한 대학으로 런던대학교(University of London)에 속해 있다. 1906년에 설립된 이 대학은 원래 대영제국 식민지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행정전문가를 양성하던 학교였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따라 제3세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지역학 전문 연구대학으로 거듭나게 된다.

소아스 동아시아 언어·문화학부 안에는 한국학 전공의 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영국에서 한국학과를 개설해서 신입생을 받는 곳은 소아스, 셰필드, 센트럴 랭커셔 대학교 등인데, 소아스가 가장 먼저 한국학 교육을 시작했다.

소아스에서 한국학 교육의 역사는 1940년대 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만 해도 한국학은 중국학이나 일본학의 부전공으로 운영되었다. 단독 학위과정이 생긴 것은 1989년부터다. 한국학을 전공하는 소아스의 학생은 1학년 때 한국의 문화와 역사·정치 등의 기본 과목을 수강하고, 2학년 때에는 교환 학생으로서 한국의 고려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3학년이 되면 본국으로 돌아가 심화 과정에 들어간다.

내가 만나본 소아스의 한국학 전공 학생들은 하나 같이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문화에 대한 애정이 깊었다. 한국학 전공 세미나에 가면 장구를 치고 창(唱)을 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한국식 이름을 쓰고, 네이버를 인터넷의 메인 메이저로 사용하는 학생도 있었다. 그들은 영어가 서툰 나에게 정확한 한국말로 공연에 대한 안내를 해줬다. 나는 한국학 전공 학생들과 강강술래 놀이도 하고, 제주굿이나 판소리, 승무 같은 한국의 전통 공연을 거의 매주 관람했다. 바쁘다는 핑계로 서울에서도 보지 않았던 전통 공연을 런던 시내 한복판에서 영국 대학생들과 함께 즐긴 것이다.

소아스에는 유럽 최고의 ‘한국학센터(CKS, Centre of Korean Study)’가 있다. 나는 한국학센터 소속의 방문학자였다. 한국학센터는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후원으로 1987년 창립되었는데, 내가 런던에 체류할 당시 한국학센터장은 살롯 홀릭 교수였다. 한국학센터는 학교 여러 부서의 한국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대내외적으로 한국에 대한 전문지식을 제공한다. 한국학센터의 가장 큰 사업은 한국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전 세계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정기 세미나와 특강을 개최를 개최하는 것이다. 아울러 주영 한국문화원과 연계해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예술인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기도 한다.

나는 매주 금요일 5시가 되면 본관 도서관에서 책을 보다 바로 앞 건물인 브루나이 갤러리에서 개최하는 한국학 세미나에 참석했다. 강연은 대부분 영국과 유럽의 저명한 한국학 전문가들이 했다. 간혹 한국의 문화 예술인들도 참석했는데, 조정래·김성수 감독과 손숙·정우성을 만난 것도 이 세미나에서였다.



▲ 소아스 대학의 본관인 필립스 빌딩

소아스는 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학 연구를 특화한 대학으로 1916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런던대학교에 속해 있다. 유럽 최고의 ‘한국학센터’가 있다.

2. 살롯 교수의 한국학 강의

소아스 한국학 전공 교수이자, 한국학센터장인 살롯 홀릭 교수는 덴마크 태생의 한국 미술 전공 학자이다. 방문학자들은 그를 친근하게 ‘살롯 교수님’이라고 불렀다.

방문학자로 머무는 동안 살롯 교수의 한국학 강의를 청강했다. 먼저, 가을 학기 ‘한국 미술사’ 현장 강의에 합류했다. 영국 도서관의 수장고에 보관된 한국의 고미술품을 직접 보는 강의였다.

살롯 교수를 따라 연구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육중한 문을 몇 개나 지나 특별 열람실로 들어갔다. 그날 본 것은 고려 시대 『화엄경』과 16세기 『삼강행실도』, 정조 시절의 『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 등과 순조 시절에 만들어진 『기사진표리진찬의궤(己巳進表裏進饌儀軌)』였다. 특히 의궤는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꼼꼼히 감상할 수 있었다. 그 책은 혜경궁 홍씨의 결혼 60주기 기념 잔치를 기록했다. 당시의 의전과 복식, 음식, 악기들의 모습

이 정확한 비율로 축소되어 그려져 있었다. 색 역시 실물의 색채를 그대로 재현했다고 한다. 가령, 그림에서 금칠이 된 의상은 실제로 금박을 물린 예복이다. 의궤가 기록문화의 정수라는 사실을 실감했다.



▲ 가을 학기 샬롯 교수의 영국 도서관 현장 강의

학생들이 연구원으로부터 의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은 당시 방문 학자로 함께 강의에 참여했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공

『기사진표리진찬의궤』는 1891년 프랑스인으로부터 사들였다고 하나, 그가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는 모른다고 한다. 세계로 흩어진 우리의 유물이 대부분 그랬듯이, 그것 역시 약탈당했을 것이다. 나는 의궤의 표지를 살며시 만져보았다. 오래된 금속 장식과 감청색 비단에서 세월의 무게가 전해졌다. 샬롯 교수의 현장 강의 덕분에 영국 도서관 수장고에 잠들어 있었던 한국의 문화유산을 만날 수 있었다.

3. 동아시아의 한국현대미술

봄 학기에 내가 들은 샬롯 교수의 강의는 ‘동아시아의 한국현대미술’이었다. 강의계획서는 무려 20페이지나 되었다. 첫 페이지에는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평가 방법이 설명되어 있었다. 그다음에는 17페이지에 달하는 강의 과정 소개가 있었다. 주차 별 강의의 주제는 물론, 주제별 강의 개요, 그 시간에 다룰 작가와 작품, 주 텍스트와 참고문헌, 그리고 ‘생각할 문제’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다. 결석이나 지각을 한다 해도, 그날의 강의 개요만 참고해 공부한다면 진도를 따라잡는 데 문제가 없을 듯했다.

강의의 전반부인 2주 차에서 5주 차까지는 일제강점기에서 70년대까지의 작가와 작품을 살펴보는 시간인데, 4주 차에는 ‘대영 박물관 현장학습’이 예정돼 있었다. 그날은 북한의 미술작품을 감상한다고 했다.

5주 차와 6주 차 사이에는 ‘리딩 위크(reading week)’가 있었다. 리딩 위크는 일주일 동안 강의 없이, 학생들 스스로 관련 도서를 읽으며 교과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기간이다. 리딩 위크 동안에 모든 학생이 공부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일주일만 나머지 반 학기를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 될 것임은 분명했다.

강의 후반부인 6주 차부터 9주 차까지는 80년대 이후의 동시대 미술을 살펴보는 시간이며, 10주 차에 간단한 이미지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었다.



▲ ‘동아시아의 한국현대미술’ 강의 시간의 샬롯 교수
학생들이 모둠별로 토의하며 이미지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다.

강의계획서의 나머지 2페이지는 강의 내용과 관련된 전시회 소개였다. 화이트 큐브 갤러리에서 열리는 박서보 작품 전시회에 대한 자료였다. 박서보는 당시 K-아트의 대가로 영국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리딩 위크 기간에 그 전시회에 갔다. 전시 작품은 캔버스의 물감을 긁고 말리는 반복 작업으로 제작된 거친 질감의 단색화였다. 청강생인 나에게도 리딩 위크는 의미 있는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다.

4. 북한 미술

샬롯 교수의 강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역시 ‘현장 강의’다.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의 학예사 출신인 샬롯 교수는 매 학기 박물관이나 갤러리, 도서관에서 현장 강의를 한다. 일반인들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예술 작품을 전문가의 설명과 함께 직접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학예사 시절의 인맥과 학맥을 동원해 마련한다고 했다. 현장 강의의 주제는 ‘북한 미술’이었다.

현장 강의는 4주 차 목요일 대영 박물관 PDF 갤러리 안쪽에 있는 작품 감상실에서 열렸다. 석사과정 강의와 합반이었다.

작품 감상실에는 북한의 회화와 포스터, 판화 작품이 나와 있었다, 임수경 전 의원의 전대협 시절 방북을 찬양한 판화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조국은 하나다”라는 어깨띠를 맨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우리의 조국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행렬하는 장면이었다. 임수경의 활짝 웃는 모습과 “장하다 통일 언니”라는 유인물을 들고 환호하는 북한 주민의 모습이 담긴 작품도 있었다. 그 작품의 하단에는 “임수경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1989년 임수경의 방북은 북한 예술의 새로운 소재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강인한 모습의 청년이 “선군 혁명 령도에 따라 강성 제국 건설하자!” “인민 경제 선행부문의 석탄공업 전력공업 철도운수와 금속공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자!”라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담은 포스터도 있었고, 통통한 얼굴에 눈이 반달 같은 전형적인 북한 미인이 “다양한 남새(채소) 음식을!”이라며 식생활 개선을 선전하는 포스터도 있었다. 제작 당시 북한의 식량난을 짐작할 수 있었다. 우리는 학예사의 간단한 설명을 듣고, 직접 작품을 감상하며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심 있게 본 작품은 박경희의 「남포 고속도로 건설」이었다.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대’에 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그 그림은 강의 첫날 PPT 슬라이드로 보았었다. 현대 미술의 특징을 재료와 소재와 기법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남포 고속도로 건설」은 소재의 현대성을 설명하는 자료로 제시되었다. 실물로 본 작품은 PPT 슬라이드와 느낌이 달랐다. 강렬하고 역동적이었다.

“노동자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생생하네요. 그런데 너무 사실적이어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요. 작품 안에 두 개의 시점이 있는 게 아닐까요?”

살롯 교수에게 질문을 하니,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고 대답했다. 그날 「남포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단상을 다음과 같이 메모했다.

- 박경희의 「남포 고속도로 건설」은 ‘고난의 행군 시대’에 열악한 건설 현장의 한순간을 포착했다.
- 이 작품의 시점은 두 개이다. 작가는 돌산 위에서 건설 현장을 조망한다. 원거리 시점이다. 다른 하나는 건설을 하는 노동자 개개인을 응시하는 근거리 시점이다. 인물의 동작과 자세는 원거리 시선만으로는 그려낼 수 없다. 전체의 조망과 부분의 응시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작가가 이렇게 서로 다른 시점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 「남포 고속도로 건설」은 주체사상의 승리라고 일컬어지는 대역사(大役事)의 현장을 기록하고 찬양하기 위해 제작된 그림이다. 남포 고속도로를 건설한 것은 청년 노동자들이었다. 그들은 가혹하게 노동했고, 많은 이들이 희생됐다. ‘평양-남포 고속도로 건설’이라는 목표에 저마다의 청춘을 바쳤다. 작가는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공들여 그림으로써 집단 속 개인의 희생을 기리고자 했을 것이다.
- 작품 상단에 그려진 평양의 모습이 신비롭고 몽환적이다. 마치 사막의 신기루 같다. 그들이 지향하는 이념의 세계도 신기루처럼 실체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 젊은이들



▲ 박경희의 「남포 고속도로 건설」(부분)

‘고난의 행군 시대’에 고속도로의 건설 현장을 사실적으로 재현했다. 조망과 응시의 시점을 사용하여 수많은 노동자의 모습을 하나하나 생동감 있게 묘사했다.

은 무엇을 위해 자신의 청춘을 희생한 것일까. 박경희의 「남포 고속도로 건설」은 주체사상에 대한 선전뿐만 아니라, 이념에 대한 성찰의 시선까지 함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5. 대영 박물관의 달항아리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샬롯 교수와 학생들은 ‘한국실’에 들렀다. 한국실은 대영 박물관의 룸 67에 있다. 인류문화의 박람회장 같은 대영 박물관에서 한국실은 바로 옆의 중국실이나 일본실에 비해 소박하다 못해, 초라하게까지 느껴졌다. 그러나 한국실은 문화교류 차원에서 조성됐다. 대영 박물관 하면 떠올리는 엘긴 마블이나 램세스 2세의 흉상은 대영제국 시절 약소국이었던 그리스와 이집트로부터 약탈한 유물들이다. 한국실의 유물은 ‘기증되거나, 정식으로 구매한’ 것들이라고 했다.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빌린 문화재도 있다. 그런 사실을 알고는 한국실의 소박함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다. 대영 박물관에서 자국의 유물을 보고 분노를 느끼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일 것이다.

대영 박물관의 한국실 조성 사업은 1997년 한빛문화재단의 이사장 한광호(1923~2014)가 100만 파운드를 기부한 것이 시작이다. 그는 1965년 처음 대영 박물관을 찾았는데, 한국 도자기 몇 점이 별도의 전시관도 없이 복도 한구석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2000년 대영 박물관에 처음 들어선 한국실은 2014년 새 단장을 하고, 공간도 확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250여 점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한국실에서 눈길을 끈 것은 커다란 달항아리였다. 1650~1750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이다. 17세기 조선의 도자기를 대표하는 이 달항아리는 영국 도자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버나드 리치(Bernard Leach)가 1935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구매했다. 그는 달항아리와 함께 영국으로 돌아가면서 “나는 행복을 안고 갑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후 도예가인 루시 리에(Lucie Rie)가 1995년까지 보관한 것을 대영 박물관이 한광호의 기부금으로 1999년에 사들였다고 한다.

가까이 보면 거칠고 한쪽 면이 살짝 일그러진 달항아리는, 그 한 치의 모자람으로 더욱 자연스럽고 정감 있게 느껴진다. 만월 직전의 보름달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날 이후, 낯선 이국땅에서 향수가 물려올 때마다 한국실에 들러 오랫동안 달항아리를 바라보곤 했다. 나라 밖에서 K-컬처를 느끼고 한국적인 것에 심취했던 소중한 추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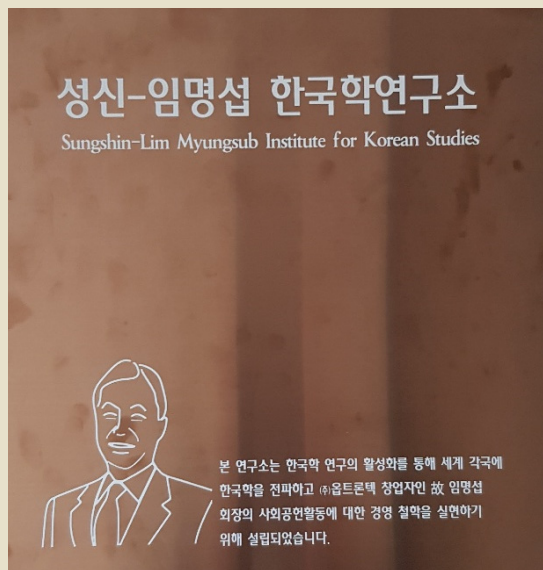


▲ 한국실의 달항아리.

한광호 기부금으로 사들였다. 표면이 거칠고 한쪽 면이 살짝 일그러진 모습은 만월 직전의 보름달 같다.

연구소 설립 취지

성신-임명섭 한국학연구소는 성신여대를 기반으로 한국학 연구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020년 11월 성신여대와 (주)옵트론텍이 기금을 출연하여 창업자 고 임명섭 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한국학에 관심을 갖는 국내외의 인재들에게 유무상의 지원을 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선진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듯이, 이제는 반대로 우리나라를 선망하는 나라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1)국내외 한국학 연구자 초빙과 관련된 공간지원 및 연구자 관리 등과 관련된 지원, (2)국내외 한국학 연구자와 성신여대의 공동연구, 연구발표대회, 학술지 발간 등의 지원, (3)국내외 교류대학의 한국학 연구자 연구비 지원, (4)성신여대의 한국학 관련 해외 연구 활동 지원, (5)기타 한국학 연구를 통해 성신여대의 국제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활동 지원이다. 성신-임명섭 한국학연구소는, 옵트론텍이 글로벌 광학전문 강소기업이라는 비전을 가진 것처럼, 앞으로 작지만 강한 콘텐츠로 세계 여러 나라에 한국의 참모습을 알리고, 한국어를 통해 꿈을 실현하는 글로벌 인재들을 지원하는 연구소가 되고자 한다.



▲ 성신-임명섭 한국학연구소 현판



▲ (주)옵트론텍 창업자 고(故) 임명섭 회장

팔목시계, 차 보셨습니까?

김일환 | 성신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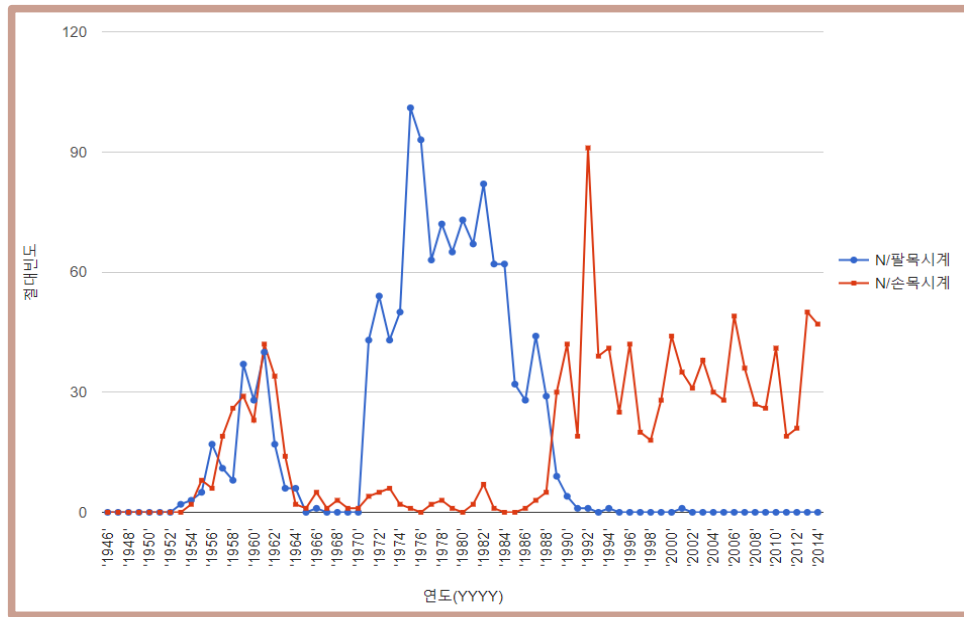


요즘 우리는 팔목시계 대신 손목시계를 사용한다.



▲ 손목시계

최근에는 손목시계가 시간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라기보다는 일종의 장식품으로 더 많이 쓰인다.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시간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손목시계라는 말이 폭넓게 쓰인 시점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림 1을 보자.



▲ 그림 1 ‘손목시계’와 ‘팔목시계’의 연도별 사용 빈도(동아일보 말뭉치)

그림 1을 보면 1990년대 이전에 ‘손목시계’의 사용 빈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는 점이 잘 드러난다. 손목시계의 빈도가 급증한 것은 1989년 무렵이었을 뿐 그 이전에는(정확히는 1970년부터 1989년까지) 손목시계보다 ‘팔목시계’의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팔목시계보다 손목시계를 더 자주 사용하게 되었을까?

1988년에 문교부에 의해 고시된 표준어 규정은 팔목시계를 버리고 손목시계를 차라는 강력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제4절 단수 표준어

제25항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 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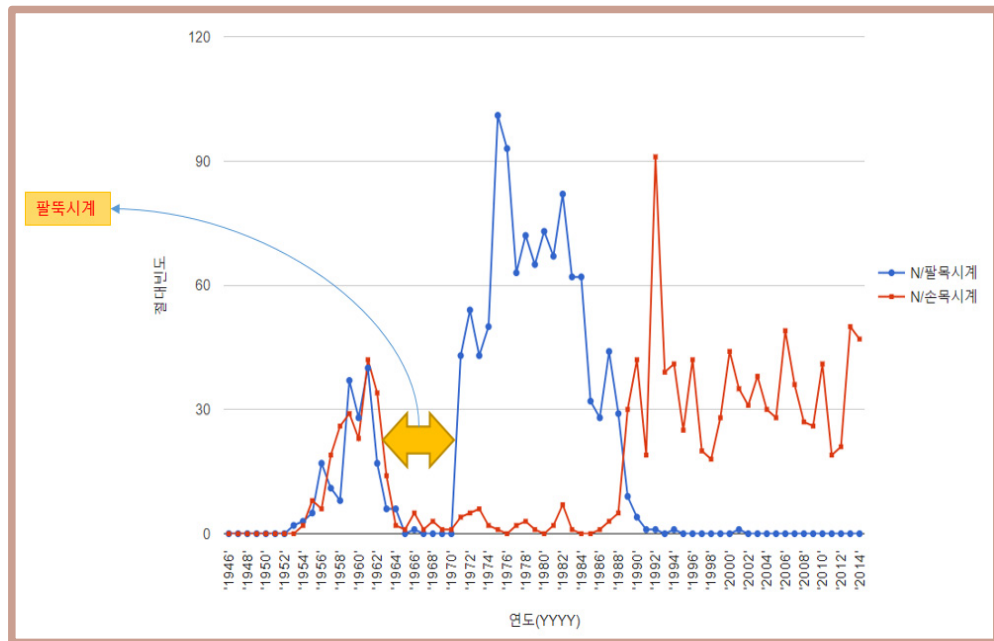
ㄱ	ㄴ
손목-시계	팔목-시계/팔뚝-시계

이상하다. 1988년의 단수 표준어 규정 중 제25항에는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이라는 판단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동아일보 말뭉치에 나타난 사용 빈도만 놓고 본다면 이 규정이 잘못 적용된 것이다. 즉 손목시계보다 팔목시계가 압도적으로 사용되었으니까 ‘팔목시계’가 표준어가 되었어야 했다.

단수 표준어의 선정이 철저히 빈도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면 ‘팔목시계’처럼 억울한 단어는

없을 것이다. 이는 당시 표준어 선정 시점에서 정확한 빈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80년대만 하더라도 말뚝치라는 개념도, 실제 구축된 말뚝치도 존재하기 않았기 때문에 어떤 단어의 빈도를 계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한편 단수 표준어 규정 중 팔목시계와 손목시계 이외에 ‘팔뚝시계’가 존재했다는 점도 재미있다.



▲ 그림 2. ‘팔뚝시계’의 사용 시기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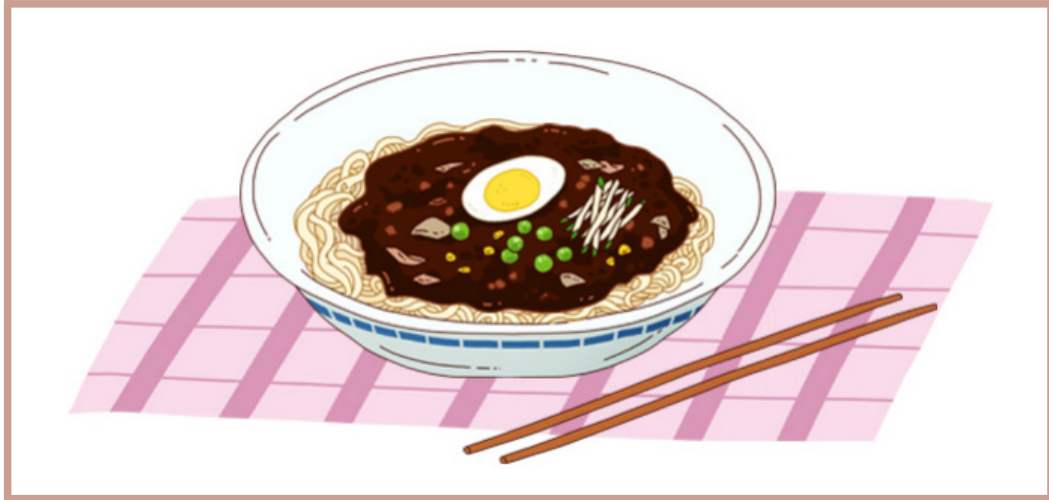
그림 2에서 보듯이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까지는 이상하게도 ‘손목시계’와 ‘팔뚝시계’의 빈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 이 시기는 ‘팔뚝시계’가 채우고 있다(팔뚝시계가 1960년대에 등장했을 것임은 놀랍게도 전산학을 전공하는 고려대학교 이도길 교수가 알려주었다).

(1961.01.20)

팔뚝시계는 1970년대 이후 손목시계와 팔목시계에 밀려 사용 빈도가 급격히 낮아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1988년의 표준어 규정은 적어도 팔뚝시계만을 제거 대상으로 삼았어야 옳다.

표준어 규정과 관련하여 2011년 새롭게 표준어의 지위를 얻은 ‘짜장면’이 떠오른다. 짜장면은 가장 많이 사용되면서도 정작 외래어 표기법 규정에 따라 표준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자장면’만이 올바른 표기로 인정되어 왔다. 그래서 표준어 관련 문제에서 ‘자장면’과 ‘짜장면’은 많은 학생들을 괴롭히던 짜증나는 국어 문제 중 하나였다. 그러나 외래어 표기법 규정

보다 현실의 사용 양상을 중시하기 시작하면서 2011년 ‘짜장면’이 ‘자장면’과 더불어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팔목시계는 더욱 억울할 수밖에 없다.

붕지와 붕다리, 국수와 국시, 양상추와 양상치.....

어느 하나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해당 단어가 언중에게 얼마나 많이, 폭넓게 사용되는지를 정확히 조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객관적이고 엄밀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시기를 아우르는 말뭉치의 존재가 선행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단어의 다양성은 언중의 사용 여부를 떠나 보존될 가치가 있다. 언어의 다양성이 소멸하는 곳에 민족의 다양성도 소멸한다는 무서운 말을 읽은 적이 있다. 하나의 단어, 하나의 언어만을 고집하는 것은 언어 다양성, 민족 다양성의 침해라는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또 다른 팔목시계를 만들지 않도록 언어정책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할 것이다.

한국 문학 번역과 한국어 읽기 교육의 만남

장미경 | 성신여대 국제교육원 대우 교수

세계로 진출하는 한국 문학의 성과

2020년 한국을 빛낸 10대 한류 소식에서 ‘세계로 향하는 한국 문학’이 6위에 오르며 확실한 자리매김을 할 정도로 한국 문학은 한류 발전의 주요 분야로 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은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2020년 꼭 읽을 책 100권’에 선정되었고,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 일본어 번역본은 일본 서점 번역소설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아래 문화체육관광부 블로그 <도란도란 놀이터>에서도 보여 주고 있듯이 문학 한류 도입기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한국 문학은 양적, 질적으로 팽창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 뒤에는 ‘한국문학번역원’이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지원하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자리 잡고 있으며 최근에는 ‘케이북(K-Book)’이라는 출판물 수출 온라인 플랫폼까지 구축되어 해외 출판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 출처: 도란도란 문화놀이터, 문체부 블로그 blog.naver.com/mcstkorea

이러한 한국 문학의 세계 진출이라는 훌륭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에는 그다지 많은 문학작품이 등장하지 않는다. 문학작품들이 기본적으로 길이가 상당하며 고급 학습자여도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인식 탓에 교재

개발자나 교사들도 문학작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어떤 방식으로 한국 문학 작품과 한국어 읽기 교육의 만남을 성사시켜 좀 더 의미 있는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번역과 통역, 제2의 창작

한국의 문학작품 및 콘텐츠(영화, 드라마, 만화 등)가 전 세계 한류 팬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있어, 현지 독자나 시청자들이 한국의 콘텐츠를 좀 더 편안하게 수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번역’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잘 알 수 있는데 먼저, 2016년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세계적 권위의 맨 부커상을 수상하게 된 데에는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가 보여준 번역의 힘이 매우 컸던 사례를 들 수 있다. 데보라 스미스는 문화 웹진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문학을 번역할 때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사람들끼리의 관계에 관한 문장’이라고 답한 바 있다. 즉, 존칭을 써야 하는 높임말이나 호칭, 친언니가 아닌데 언니라고 부른다가 회사에서 직급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영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말이라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그녀의 해결책은 ‘그런 것들을 모두 번역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한국 사회의 모든 상황을 이해해야만 하는 건데 한 권의 책에서 그 모든 것을 보여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함으로써 좋은 번역이 반드시 원작의 내용을 똑같이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을 읽게 될 현지 독자들의 입장을 더 배려하여 번역하는 것임을 시사하였다.

또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2020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포함하여 4관왕의 위업을 달성하였을 때, 봉 감독의 멋진 한국어 수상 소감이 전 세계 영화인들로부터 호평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숨은 조력자 샤론 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한국어와 영어 두 언어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영화 전공생으로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이해도 뛰어났기 때문에 봉준호 감독의 한국어 답변을 영어권 청중들이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표현으로 재치 있게 전달함으로써 감독 못지않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인기를 누리게 된 것이다.



(출처: 맨부커상 공식 트위터)



(출처: 중앙일보.20.2.19.)



(출처: 뉴스엔.20.5.22)

오스카상에 빛나는 <기생충> 영화의 인기와 함께 판매 열풍의 주인공이 되었던 ‘짜파구리’라는 단어도 영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여서 번역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의 ‘짜파게티’와 ‘너구리’라는 라면을 섞어서 만들어 내는 새로운 요리인 짜파구리를 그대로 ‘소리’로 전달했다면 영화 관객들의 이해도는 높지 않았을 것이다. 번역가 달시 파켓은 짜파구리를 세계인들에게 좀 더 익숙한 ‘ramen’과 ‘udon’을 합친 ‘radon’으로 번역함으로써 원작을 넘는 제2의 창작에 성공한 것이다.

한국 문학 번역과 한국어 읽기 교육의 만남은 어디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문학 혹은 콘텐츠 번역에 있어 ‘번역’은 ‘원작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현지 독자 눈높이에 맞게 그들의 언어로 재창조하는 매우 매력적인 영역’이다. 다양한 문화권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한국 문학’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학습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대상이며 문학적 소양을 갖춘 한국어 학습자들은 훌륭한 예비 번역가로 성장할 수 있다. 다만, 문학 작품 속에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한국어 학습자들이 쉽게 ‘사전’을 통해 혹은 ‘한국어 학습 경험’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요소들이 존재하기에 그 지점을 번역 과정을 바탕으로 하는 읽기 교육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간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문학작품 번역 관련 어떤 연구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단순히 문법적 양상의 차이를 소개하는 것이 목적인 논문도 있는 반면에 ‘한국어 번역과 글쓰기’, ‘한국 문학 번역 교육 발전 방안 및 교재 개발 연구’와 같이 적극적인 번역 교육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 한국 문학 작품과 일본어 번역본의 비교를 통한 결과지속상 ‘-어 있-’의 대응 양상 연구(김효신·박지현, 2022)
-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로 문학하기: ‘한국어 번역과 글쓰기’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박지혜, 2021)
- 해외 한국어문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 문학 번역교육의 사례와 발전 방안 연구: 이스타불대학교 한국어문학과와 소설 <대장 김창수> 번역교육 사례를 중심으로(손영은, 2020)
- 터키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 문학 번역 교재 개발 연구(하티제 괴르올루 튀르코쥬·픽셀 튀르코쥬, 2020)

특히, 다음 세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문화 어휘’, ‘문화 부등성’, 그리고 ‘상호문화 역량’과 같은 핵심 개념들은 번역 활동 및 번역 교육이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 및 한국 문화에 대한 심층 이해를 지원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여러 장점을 제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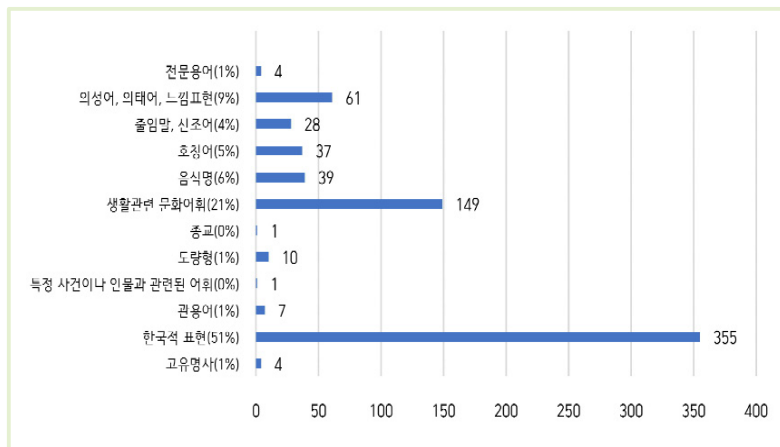
- 한국어-아랍어 문화 어휘 번역방법 연구(곽순례, 2022) - <82년생 김지영>에 나타난 문화 어휘를 번역된 아랍어본 문화 어휘와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 어휘 번역 방법을 제안하였음

- **문화 부등성에 따른 중국인 학습자의 비판적 수용 연구:**『82년생 김지영』의 원본 및 중국어 번역본 비교를 중심으로(최단, 2022) - 원천 텍스트와 번역 텍스트를 함께 읽으며 문화적 번역이 행해진 부분을 발췌하여 학습자에게 분석시키면서 양국 간 문화적 차이를 동시에 경험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동반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게 함
-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본 한국문화교육의 방향:** 문학작품 번역과 해석의 경험을 중심으로(김정우, 2020) - 다른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상호문화역량'을 키우기 위해 문학 작품을 번역하고 해석하면서 자신의 것과 이국적인 것 사이의 차이, 완벽하게 전환될 수 없는 차이의 공간을 선명하게 보게 됨

주제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연구 결과를 통해 한국어 읽기 교육과 문학 번역이 연계될 수 있는 지점을 찾는다면 바로 이러한 문학 작품 속 문화 어휘를 발견하고 그 어휘가 쓰인 텍스트 내 맥락을 이해하여 자신의 언어로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즉, 단순히 문학 작품을 한국어로 읽고 이해하는 단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학습자들이 자신의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문화적 번역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자신의 공간과 한국적인 공간 사이의 차이를 충분히 인지하여 자기만의 문화정체성을 기르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곽순례(2022: 3291)에서는 『82년생 김지영』 작품을 아랍어로 번역한 결과들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문화 어휘의 범주를 설정하였고 번역 전략을 제시하였다.



출처: 동아일보 21.7.21, <82년생 김지영' 아랍어 번역자 마나르 아흐메드 씨>



- 문화 관련 어휘 범주: 고유명사, 특정 문화와 관련된 어휘, 특정 사건이나 인물과 관련된 어휘, 관용어, 도량형의 단위, 종교, 한국적인 표현 범주
- 문화 어휘 번역 전략
 - ① 이국화 번역 전략: 원문의 이국적인 요소를 번역문에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가독성이 다소

- 떨어지지만 번역의 충실성에 입각한 원문이 갖는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전략
- ② 자국화 번역 전략: 번역문이 마치 원문처럼 읽히도록 번역문에 나타나는 원천어의 이국적인 요소를 최소화함으로써 번역사의 개입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 독자들이 번역문을 읽을 때 낯설음을 최소화하는 전략

이러한 정의와 번역 전략을 따라 실제 ‘문화 어휘’를 번역한 사례를 몇 개 보자면 먼저 한국어의 대표적인 다의어 ‘눈치’라는 단어가 여러 문장 속에 쓰인 경우로 의미가 각각 조금씩 다른데 실제 번역 결과물에도 맥락에 맞춰 여러 단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문장 안에서 독자들의 낯설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국화 번역 전략을 활용한 사례이다.

- ① 김지영 씨는 전날 밤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 ‘~처럼 보였다’
- ② 아이는 금세 눈치껏 눈물을 멈췄고 ⇨ 스스로
- ③ 선생님은 벌써 눈치채고 있었는데 ⇨ 알고 있다
- ④ 막내는 눈치 없이 투덜거리다 ⇨ 생략

줄임말이나 신조어들의 번역 역시 한국어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문화적 요소’가 상당히 많이 포함된 어휘들로서 ‘맘충’과 같은 단어를 ‘기생충’이라는 어휘를 붙여 여성을 비하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밥만 축내는 엄마’의 의미를 살리어 번역한 것을 볼 수 있다. 동일 소설의 영어판에서도 ‘자국화 번역 전략’의 사례로 ‘맘충’을 ‘Mum-roach’로 번역하였다.

김정우(2020:175-176)에서는 상호문화적 한국어 교육의 내용으로서의 ‘번역’을 다루고 있는데, 번역에 대한 리괴르의 정의를 언급하며 이러한 시각이 한국어 학습자들의 문화 교육 내용을 마련하는 데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 번역은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리괴르에 따르면 그것은 ‘행복한 도전’이다. 번역은 도처에서 번역이 불가능해 보이는 부분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것은 특히 시를 번역하는 경우 더욱 절망적인데, 그러나 자국어와 외국어 사이에는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수용하여 ‘완벽한 번역이라는 이상’을 포기한 후, “외국어와 모국어 사이를 끝없이 왕래”한다면, 그것은 행복한 도전이 될 수 있다. 완전한 번역이란 불가능하지만, 이 ‘합치 없는 등가’를 실패로 볼 것이 아니라 번역의 불가피함으로 인정하고 나면 “저자에 충실하고자 하는 소망과 저자를 배신했다는 의심을 감내할 용기”가 생겨나면서 ‘번역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

즉, 단어로부터 쌓아 올리는 번역이 아니라 폭넓은 읽기를 통해 문화에 대한 스키마를 마련하여 문장과 단어로 내려가는 방식의 번역이 의미있다고 보았으며, 이에 번역과 읽기 교육이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다고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여러 연구 결과들을 통해 한국 문학 작품들이 한국어 읽기 교육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까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아직 예비적인 단계로서 구체적인 교육 과정을 구성하거나 교수법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기존 교육 과정에서 ‘문학 작품’이 교재에 들어가 있으나 단편적으로 작가나 내용을 지식으로 이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원천 텍스트와 번역 텍스트 사이를 왕래하며 어떠한 문화적 요소에서 서로 차이가 있는가를 스스로 발견하고 목표어권 독자들에게 낯설거나 존재하지 않는 요소들, 즉 문화 어휘들을 번역해 내는 활동으로 읽기 교육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한다.

또한, 관점의 변화에서 머무르지 않고 심선향(2021:27)에서 제시하고 있는 ‘번역 비평’의 6단계 중 ‘번역 분석’ 단계를 한국어 읽기 교육에 적용하여 한국 문학의 이해, 고급 수준의 한국어 텍스트 이해, 나아가 상호문화적 한국 문화 교육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고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들이 ‘문학’이 가지는 ‘본질적 스토리의 힘’을 느끼고 ‘문학 번역’의 과정을 통해 한국어와 자신의 언어 그리고 문화가 가지는 차이를 스스로 깨닫고 또한 스스로 채워 나갈 수 있는 신박한 제2의 창작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Connecting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and Korean reading education

Mikyung Chang |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Despite the remarkable achievement of Korean literature's entry into the world, not many literary works appear in textbooks used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Textbook developers and teachers are not actively using literature because of the recognition that literary works are basically of considerable length and that it is difficult for even advanced learners to fully understand the contents. In what way can Korean literature and Korean reading education be met and used as a more meaningful subject?

In terms of literature or content translation, 'translation' is 'a very attractive field that recreates in the language of local readers based on a deep understanding of the original work'. In the field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argeting learners from various cultures, 'Korean literature' is an effective educational subject that can naturally show and learn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and Korean language learners equipped with literary talent can grow into excellent preliminary translators. However, there are elements in literature that Korean learners from various cultures cannot easily understand through a 'dictionary' or 'Korean language learning experience' alone, so that point can be solved through reading education based on the translation process.

If you find a point where Korean reading education and literary translation can be linked, you will find cultural vocabulary in the literary works and understand the context in the text in which the vocabulary is written. In other words, it does not stop at simply reading and understanding literary works in Korean, but by experiencing the process of translating literary works into their own language, foreign learners identify the parts that need cultural translation and fully recognize the difference between their own space and Korean space. In particular, advanced level Korean language learners can feel the 'essential story power' of 'literature' and through the process of 'literature translation' realize the gap between Korean language and their own language and culture, and also fill in the gaps of their own. We can look forward them to being able to become the second creators of the original literary works.

한국어 교육에서 K-일상 교육을 위한 제언

이성희 | 총신대 호크마교양교육원 교수

K-일상 문화 교육의 필요성

미셸 마페졸리에 따르면, 문화소비의 주체인 인간 행위에 대한 탐구는 일상성에 대한 연구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일상생활의 사회학이 관심을 두는 생활세계는 이론적 표상 그 이전의 것이며, 집합적인 경험에 바탕을 둔다. 일상성은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적응하는 유기적이고 전체적이며 구성적인 질서를 가리킨다.



크리스토프 볼프(Christophe Wulf)는 인간의 학습과 인지 과정은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한 시대, 사회, 개인이 가지는 인성 구조는 인류의 오래된 전유 결과이며 역사성과 사회성, 심리문화적 성격들이 혼합되어 이머전스의 형태로 표출되는 것이다. 문화의 개념은 문학, 예술, 음악, 연극 등뿐만 아니라 생활 양식 전반으로 확대된다.

K-일상 문화 또한 한국의 생활 양식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에게 교수하는 한국 문화는 한국의 유명한 문학, 예술, 음악, 연극 등 소위 고급 문화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그날그날의 삶의 모습을 재현하는 생활 양식, 일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한국어가 소통되는 현장은 고급 문화가 향유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숨 쉬고, 일하며, 사랑하고 살아가는 일상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 학습이 어느 정도 진행된 학습 기관에서는 ‘한국의 일상’이 새로운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프랑스 한국문화원(Kocis, Centre Culturel Coreen) 한식 문화 교육 K-Food 아카데미, 한식 아틀리에는 길거리 음식 배우기 프로그램을 열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총무김밥, 빈대떡, 토스트 등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요리하고 함께 시식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국 문화 교육의 초점은 일상에 맞춰져야 한다.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은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고 그 소통의 대상은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이기 때문이다.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과 소통하기 위해 한국의 일상 문화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평범한 한국인의 그날그날의 삶의 모습인 ‘K-일상 문화’에 주목할 때가 되었다. ‘지금·여기’의 한국인의 일상에 초점을 맞춰 K-일상 문화 제시 방안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



▲ 출처: 프랑스 한국문화원

한국어 교육에서 K-일상 문화

서울 소재 C대학 언어교육원 한국어과정에서 6급 수료 후 최고 과정을 수강 중인 학습자 18명을 대상으로 ‘내가 알고 싶은 한국 문화’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한국어 학습자들은 자문화와 타문화의 상호영향에 있어 ‘제3의 공간(third place)’을 형성하고 있다. 자문화와 타문화의 관계를 설정하고, 의미를 협상하고,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제3의 공간의 형성은 자문화만을 알고 있을 때는 형성될 수 없는 공간이다. 제3의 공간은 자문화만 알던 학습자가 타문화를 접했을 때 비로소 자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이를 통해 타문화를 발견하여 둘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게 되는 공간이다. 제3의 공간은 타 문화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타 문화를 비판적으로 해석할 때 형성된다.*

상호문화적인 소통은 한 쪽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나와 너, 자문화와 타 문화라는 두 영역의 설정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나와 너의 문화를 동등한 관계로 놓고 시작하겠다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자기 문화 속에 살면 자기 문화를 볼 수 없다. 타문화를 접하게 될 때 비로소 오랫동안 자신이 속해 있던 자문화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한국에서 유학하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제3의 공간에서 형성된 ‘알고 싶은 한국 문화’ 항목은 한국 문화 속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발견할 수 없는 것이기에 중요하다.

한국어 학습자가 알고 싶은 K-일상 문화

알고 싶은 한국 문화 중 가장 많은 항목은 한국 사람들의 잦은 술 자리, 회식, 뒤편이, 첫 만남에서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술 문화에 대해서였다. 또한 술 예절이 궁금하다는 학습자들도 있었다. 또한 홍콩 학습자 A는 한국인들이 직장, 대학생들의 회식, 사적 만남에서 술을 마시며 편한 분위기가 되면 허심

* Kramsch, C., Context and Culture in Language Teaching,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pp. 205, 255~257.



▲ 프랑스 한국문화원

탄회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에 대해 궁금해 했다. 홍콩에서는 보통 가족, 친구들에게 하소연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이다.

아이스커피, 찬물 등 찬 것을 잘 먹는 것을 궁금해 하는 중국 학습자들도 다수 있었다. 중국에서는 따뜻한 차를 마시기 때문에 한국에서 찬 것을 마시는 것이 중국 학습자에게는 차이점으로 발견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인들에게 습관적으로 굳어진 인사에 대해 외부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날카롭다. 언제 밥 한번 먹자는 한국인의 인사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여 난감했던 경험은 많은 외국인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이다.

“언제 밥 한번 먹자” 언제 밥을 같이 먹을까요? 글썄요...잘 모르겠습니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밥을 먹을까요? 글썄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1위는 “언제 밥 한번 먹자” 그냥 인사로 하는 표현입니다. 저는 그러한 표현인 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아마 헤어질 때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밥 한번 먹자”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끝맺는 말인 것 같습니다.

(○린, 베트남)

언제 밥 한번 먹자고 해놓고 그것을 약속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은 베트남 학습자에게는 거짓말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한국인들이 헤어질 때 아쉬움을 표현하는 방식이고 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하는 긍정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알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 문화를 관찰하고 탐색하던 학습자가 문화를 체험한 뒤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 시끄럽게 떠들고 게임을 하는 술자리 문화를 이질적으로 느끼던 학습자가 자신의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를 다음

과 같이 서술했다.

반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에 참여한 뒤 제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술자리는 불건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낯설고 어색한 분위기를 깨뜨리고 모든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자리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가 겉으로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직접 경험해보면 그 때 부터 제가 가지는 관점과 생각이 바뀌고 흥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란, 베트남)

학습자들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보여주었다. 일본 학습자 B는 1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면서 궁금한 한국 문화가 있을 때 스스로 알아가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한국 친구를 많이 사귀고 모르는 것을 하나하나 묻기
- 혼자 있을 때 궁금한 게 생기면 인터넷으로 찾기
- 이 나라에서는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카오카, 일본)

친구를 많이 사귀어서 모르는 것을 묻겠다는 성실한 태도가 돋보인다. 자기 나름대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에게 묻겠다는 태도는 한국 문화에 대한 귀납적인 학습 태도이기에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 시대 한국 문화 객관화의 과제

한국의 다문화 상황은 가속화되고 있다. OECD 기준 외국인 거주 인구 5% 이상이면 다문화 사회로 본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지난 3년 간 외국인 유입이 급감하여 5%를 넘지는 않았지만 이주여성, 노동자, 다국적 기업의 확대 등으로 대한민국에서 외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이 되었다. 이러한 조류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지구촌으로 묶이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가올 미래에 다문화사회에 대한 교육적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되었다.

다문화사회에서 문화적 맥락이 다른 외국인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한국 문화를 객관적으로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만 당연한 것이 외국인들에게는 낯선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들도 모르는 한국인들의 특성이 있다. 한국인들의 심리적 특성, 한국인만의 가치관 등은 한국인들이 잘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인의 특성을 민첩하게 알아차린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서 나의 가족에 대한 질문, 종교에 대한 질문, 아니면 나의 한국에 대한 의견과 비난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는지 큰 고민이 된다. 이런 것에 대해



▲ <https://m.segye.com/view/20170711003524>

한국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국 사람들은 나의 인생의 대해 자세히 물어보면 어색한 것이다. (○피데, 스웨덴)

이 문제는 한국인의 집단주의적 심성을 파악하면 이해될 수 있는 사안이다. 네덜란드의 조직 심리학자인 호프스테트(Geert Hofstede)에 따르면 집단주의는 '우리'라는 정체성, 집단의 의무, 집단의 지향적 욕구와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화의 가치 지향성을 일컫는다. 호프스테트의 연구에 힘 입어 위의 스웨덴 학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서 가족에 대한 질문, 종교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한국인이 집단주의 경향이 우세한 나라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이다.

K-일상 문화는 그 오래된 전통 만큼이나 다양한 콘텐츠가 축적되어 있다. 또한 외국의 문화를 받아들여 융합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는 한국 문화의 융합 지향성, 유연성 때문에 한국 문화에는 다양한 외래 문화가 녹아 있다. 이들을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어 학습자에게 제시하는 것은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K-일상 문화를 전통과 현대, 우리 것과 그들의 것이라는 좌표를 통해 자리매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방대하고 난해한 문제 앞에서 연구자들이 겸허하게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문제의 규모와 그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연구자들의 협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K-일상 문화를 통한 한국 문화 교수·학습 방안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이 글은 『돈암어문학』(42집)에 발표한 논문을 일부 발췌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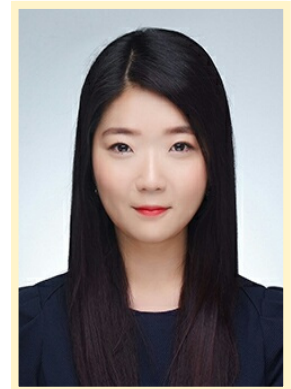
K-pop의 세계화

서민정 | 이화여대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 한국어교육학과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의 연간 주요 한류 이슈·권역별 한류 트렌드 분석 핸드북인 '2022 글로벌 한류 트렌드'에 따르면, 해외 한류 소비자들은 한국 연상 이미지로 5년 연속 'K-Pop'을 가장 먼저 떠올렸다. 특히, 최근 십여 년 동안 꾸준히 인기를 다져온 K-Pop은 BTS, 블랙핑크 등의 아이돌을 중심으로 한류를 이끌어어나가고 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한때는 중소 기획사의 K 그룹일 뿐이었던 BTS처럼, 처음부터 K-pop 시장의 해외 유입은 쉽지 않았다. 우리나라 대형 기획사들은 예전부터 대한민국의 좁은 음악 시장을 벗어나 해외로 진출할 방법을 찾아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실패가 잦았다. 현지에서 러브콜을 받고 진출을 했던 보아나 세븐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으며, 원더걸스도 JYP에서 미국 진출을 진행했으나 한국에서의 엄청난 인기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유의미한 성과 없이 한국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2011년 BIGBANG의 앨범이 한국어 앨범 중 대한민국 최초로 빌보드 차트 진입해서 150위에 기록되었고 2017년 BIGBANG이 다시 한번 더 빌보드 메인 차트에 진입했었다. BIGBANG은 2015년부터 약 1년간 MADE WORLD TOUR라는 이름으로 콘서트를 열었다. 아시아 대륙에서 시작해 오세아니아, 남미, 북미, 등 다양한 국가에서 개최된 이 콘서트는 총 66회 공연을 했으며 약 150만 명 관객을 끌어들이었다. 2012년에 발표한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빌보드 HOT 100에 K-pop 아티스트 중 처음으로 7주 연속 2위를 기록했다. 그 후 2017년 BTS의 DNA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85위로 진입했으며, 2018년부터 BTS가 미국 음악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기 시작했다. 이에 BTS는 'LOVE YOURSELF'라는 월드 투어를 진행했고, 영국 'O2 아레나'를 비롯해 전 세계 11개국에서 공연을 하던 2018년에 MAMA에서 'Artist Of The Year'를 수상하기도 했다. 점점 BTS의 인기는 올라갔고, Fake Love 활동은 아시아 가수 중에는 최초로, 외국어 앨범으로는 12년 만에 빌보드 HOT 200에서 1위를 했다. 코로나19로 정신없던 2020년 중반, Dynamite가 21세기 최초로 빌보드 HOT 100에서 1위를 차지한 아시아 아티스트이자 비영어권 가수 최초로 HOT 100, Billboard 200, Artist 100 차트 모두 1위를 차지한 아티스트가 되었다. Dynamite 때의 현상이 일시적이라고 보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 이후에도 SAVAGE Love, Butter, Life Goes On 등의 곡이 여러 차트에서 모두 1위를 자주 차지했으며, 역대 4개 팀만 이뤘다는 빌보드 HOT 100의 1위와 2위 동시 석권을 성공시켰다.

전 세계 대중음악 유행의 중심을 빌보드가 잡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더 치중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 유럽에서의 인기도 기존보다 매우 상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영국에서는 주류로 여길 수는 없지만, UK 앨범 및 싱글 차트 모두에 BTS와 블랙핑크가 상위권에 진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3월에는 BTS가 처음으로 독일 음악 차트 1위에 올랐다. 음악적으로 보수적인 성격이 짙은 독일에서 아시아 그룹 최초로 독일 음악 시장의 정상에 오른 것이다. 그 후, 2022년 5월 14~15일에 독일에서 팬데믹 이후에 유럽에서 처음 개최된 최대 규모의 케이팝 콘서트인 'K-pop Flex' 콘서트에는 10만 명이 넘는 해외 팬이 몰렸다.

중동에서는 4년 연속 한국 연상률 1위였던 'K-pop'을 제치고 '한식'이 1위를 기록했으나 K-pop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높다. 특히 중동 국가들 가운데 아랍에미리트(UAE)에서는 유난히 K-pop에 반응이 뜨겁다. 2022년 1월 UAE의 두바이 엑스포장에서 열린 케이팝 콘서트에는 6천여 명의 관객이 몰려들었다. 2022년 9월 10일에는 UAE 수도인 아부다비의 가장 큰 공연장에서 케이팝 공연이 열렸는데, 중동 주변국 및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케이팝 팬들이 응원 도구까지 챙겨서 비행기를 타고 와 콘서트에 참석했다. 2022년 10월 2일에는 두바이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섞은 케이팝 콘서트가 성황리에 끝났다. UAE뿐만 아니라 이웃 국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관심이 높다. 2022년 9월 30일부터 10월 1일에 수도 리야드에서는 2019년에 열린 BTS 공연 이후 처음으로 케이팝 콘서트인 KCON(케이팝 순회 콘서트)이 개최되었다.

나라별로 선호하는 음악의 장르와 리듬이 다르다 보니 한국 대중에게는 취향이 맞지 않는 음악이 해외에서는 큰 인기를 끌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다국적 혼성그룹인 KARD라는 그룹이 있다. KARD는 장르적 특화가 잘 되어있어 북미 시장에서 인기가 굉장하다. KARD는 2017년에 두 번째 싱글 앨범으로 아이튠즈 World Wide Song Chart에 63위로 진입하여 최고 25위까지 올랐고, 영국 차트에서는 22위, 브라질의 메인 송 차트에서는 34위에 진입했다. 그리고 2022년 6월에는 미니 5집을 발표한 후 미국, 스페인, 멕시코 등 16개국 아이튠즈 음악 앨범 차트에 진입했다. 2022년 10월에는 멕시코의 과나후아토에서 열린 '세르반티노'라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중남미 최대 규모의 문화예술축제에 초청받아 단독으로 약 1시간 정도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2021년 6월 5일에 방영된 SBS 뉴스의 한 기사에서는 칼군무로 상징되는 화려하고 정교한 퍼포먼스, 다채로운 영상 콘텐츠와 비주얼, 패션, 소속감 강한 팬 문화가 K-pop의 기반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K-pop의 특징이 무엇이기에 다른 나라의 음악과는 다르게 평가받는 것일까?

이에 대한 이유는 사실 세대와 관점에 따라 너무나도 많은 이유로 나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K-pop은 '보이는 음악'이라는 점이다. 아이돌 뮤직비디오 대부분은 '이미지형'이다. 즉, 각각의 아이돌이 설정한 그들만의 세계관을 화려한 영상미 속에서 그 시기 유행하는 패션이나 메이크업, 연출 등을 드러나게 포함시키기에 K-pop 아이돌 가수의 뮤직비디오가 세련되고 자극적이라 느껴지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때로는 10대나 20대가 걱정할만한 보편적인 고민이나, 희망을 심는 내용 혹은 세상에 도전적인 메시지를 담은 가사 내용을 가지고 '드라마형'으로 뮤직비디오를 제작해서 인종과 나라를 뛰어넘는 흡입력을 만들어 낸다. 예를 들어, BTS는 몇몇의 뮤직비디오를 통해 BTS UNIVERSE라는 일명 'BU'를 선보이며 그들만의 세계관을 드러냈다.



▲ 출처: 블랙핑크 뮤직비디오

두 번째로, K-pop은 혼종성과 무경계라는 특징을 가졌다. K-pop은 음악의 전통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짧기에 자극적인 요소를 카피하고자 하는 부분이 많았다. 서양 유명한 가수들이 불러서 히트친 스타일의 곡들을 카피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곡을 그대로 표절하는 것이 아니라 서양 가수의 곡 느낌을 카피해서 원곡과 비슷한 느낌이 나도록 같은 장르의 곡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또한, 한국계 혈통이 전혀 없는 미국인 4명으로 구성된 K-Pop 그룹인 EXP에디션, 런던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유럽 최초의 K-Pop 걸그룹 KAACHI(가치), 멤버 9명 전원이 일본인으로 구성된 JYP 걸그룹 니쥬 등이 있으며 8360만 명의 팔로워 수를 자랑하는 블랙핑크의 리사는 그녀의 모국인 태국에 있는 한류 팬들이 그녀를 K-Pop 가수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듯 K-pop은 인종, 국가, 언어, 성별, 나이 등 모든 것의 장벽을 무너트리고 있다.

세 번째 특징은 응원문화(팬덤)이다. K-pop 아이돌은 팬들과의 소통에 진심으로 정성을 쏟는다. 예를 들어, 무대 비하인드 스토리나 안무 연습, 멤버들의 일상생활이 담긴 영상 등을 계속해서 업로드하며 팬들과 일상을 나누며 소통한다. 그 외에도 같이 셀카를 찍어준다거나, 팬미팅을 여는 등 BTS뿐 아니라 대부분의 K-pop 가수들은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이런 팬 문화도 한국 팬과 해외 팬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한국 팬 문화는 ‘충성도’가 굉장하다. 보통 ‘팬들이 아이돌을 키우는 문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거나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팬들만의 공동체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에서는 방탄소년단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ARMY라고 불리는 집단과 같이 여러 아티스트들의 팬 집단이 존재하지만, 한국과 같은 ‘충성도’ 있는 코어 팬을 확보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네 번째 특징은 칼군무와 노래 실력을 동반했다는 점이다. 한국 아이돌은 노래, 춤, 패션, 비주얼



▲ 아이돌 칼군무

등 다양한 점을 겸비한 종합 공연 예술가다. 이들은 여러 사람이 같이 추는 춤에서 자로 잦 것처럼 정교하게 조금의 어긋남도 없이 춤 선의 각도를 똑같이 동작을 맞춰 움직이며, 화려하고 절도 있게 춤을 춘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연습을 해야 하기에 칼군무는 ‘노력의 결정체’로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K-pop 가수가 다른 나라의 가수들과 다르게 종합 공연 예술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연습생이라 불리는 한국 특유의 기획사 시스템 덕분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대형 기획사 네 곳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연예인 기획사에서 아이들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세계 정상에 우뚝 선 K-pop에 관심이 커지면서, K-pop 본고장에서 직접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거기에 한국 기획사들이 해외 시장을 타깃으로 하기에, 요즘은 외국인 연습생도 많아지는 추세다. 한국인이 비율적으로는 더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평균적으로 연습생 10명 중 3-4명은 외국인 연습생이다.

K-pop이 해외에서 유명해짐에 따라 다양한 한국 문화가 외국에 수출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한글’이다. BTS가 유명해질수록 그들의 노래 내용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이에 따라 멤버들이 꾸준히 작사 및 작곡에 참여한 점이 또 다른 BTS만의 강점이 되었다. 어차피 내 인생이니 내 멋대로 살아도 괜찮다며 자신 있게 외치는 ‘불타오르네’, 빈 무대의 공허함 앞에서도 영원히 노래할 것을 다짐하는 ‘Young Forever’, 아이돌 그룹에 대한 비난의 시선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IDOL’ 등 BTS는 그들의 음악 안에 직접 고민하고 경험한 내용을 고스란히 담았기에 사람들의 공감을 더 얻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청춘의 불안을 노래하면서도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희망가라는 점 또한 팬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해외 팬들 사이에 화제가 되는 ‘돌민정음’은 ‘아이돌’과 ‘훈민정음’을 합친 합성어로 소리가 나는 대로 적는 훈민정음의 특징을 활용한 신조어다. 아이돌 문화에서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을 한국어 발음 그대로 영어로 쓰는 것을 말한다. 이런 돌민정음은 보통 외국어로 번역했을 때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살지 않거나 대체할 만한 단어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Oppa(오빠)’, ‘Aegyo(애교)’ 등이 있다. 때때로 한글과 영어를 합성하기도 한다.

해외 팬들 사이에서 돌민정음이 하나의 팬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해외 팬들의 한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어 공부가 한류와 함께 퍼져나가고 있다. 특히, 유튜브에서 케이팝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영상이 인기가 많다. BTS나 블랙핑크 같은 아이돌의 노래 가사를 사용해 한글을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든 콘텐츠가 계속해서 제작되고 있다. 이에 맞춰 세종학당에서는 다양한 K-pop 가수들이 자신들의 유명한 노래를 부분적으로 다양한 외국어로 바꾸어 부르는 ‘Transonglation’이라는 프로그램과 K-pop 무대 공연 프로그램을 영어 버전으로 만든 ‘아리랑’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K-pop은 다양한 한류 콘텐츠의 새로운 유행을 선도하고 있다. 단순히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한국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K-pop과 한국어 교육 연계 콘텐츠 개발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한글이 세계 속에 더 공고히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몽골의 현직 교원들의 한국어 교원 재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및 모의 시험 분석 결과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re-education of incumbent Korean language teachers in Mongolia and Mock Test Analysis Results

Sainbilegt.D*, Sarnai.B** (NUM)

1990년 3월에 외교관계가 수립된 이후 사회 전 분야를 걸쳐 한몽 관계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 당시 외무부 산하 동양학 연구소에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된 것이 몽골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시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후 몽골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교수진과 교육과정, 교재 등 여러 방면에서 개발되고 발전되어 왔다. 1991년에 몽골국립대학교 아시아학과에서 한국어학과가 개설된 후 인문대학교 아시아문화 학과 한국어 교육과정(1992), 시립울란바토르대학교 한국어학과(1994), 국제울란바토르대학교 한국어, 한국학과(1995), 오르헹대학교 국제학과(1998) 에서 한국어 교육과정이 시작되었다.

2000년 이후 한국어를 가르치는 대학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한국어 학원 수도 늘었다. 울란바토르 시내에서 몽골국립교육대학교 동양언어문학 학과(2000), 한몽 기술대학(2001), 과학기술대학교 한국학과(2002), 몽골민족대학교 국제교류대학 한국어 교육과정(2004), 엔흐어르칠링 대학교 외국어학과(2005), 이흐자삭 대학교 동양 언어학과(2005), 후레 대학교 한국어학과(2009)에서 한국어 교육과정이 개설되었으며, 지방에서는 다르항대학교 교육학과(2003), 험드 대학교 외국어대학(2007)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기 시작했다.

현지 한국어 교육과정 유형을 보면 1)초중고등 학교 한국어 교육과정, 2)국립 또는 사립대학교 한국어 교육과정, 3)세종학당을 비롯한 어학당 교육과정 등 크게는 3가지 유형이 있는데, 현재 총 6개의 초중고등학교, 13개의 대학교 한국어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몽골 대학교에서 학위과정으로 한국어를 습득하는 학생 뿐만 아니라 어학원에서 초급, 중급 과정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 몽골 대학교에서 650-700여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학위과정으로 배우고 있으며, 8,818명의 학습자가 비학위과정, 즉 대학교 선택과목이나 초중고등학교와 세종학당과 일반 어학당에서 배우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반면에 현지 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원 수가 150여 명이다. 이중 비원어민 교원들은 87여 명으로 조사되었다. (2021년 11월 기준)*** 이들 교수진은 한국에서 대학원 석·박사과정을 졸업한 유학 경험자나 몽골 대학교에서 언어학, 교육학, 한국학 등을 전공한 교원들이 대부분이고 한국인 교원보다 몽골인 한국어 교원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 Sainbilegt Dashdorj, 몽골국립대학교 예술과학대학, 아시아학과, 한국학 교수

** Sarnai Buyantogtokh, 몽골국립대학교 예술과학대학 교육학 박사과정, 울란바토르2 세종학당 교원

*** 몽골국립대 내부 조사 통계 결과.

이번 연구에서 한국어 교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현직 한국어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에 대한 인식조사' 및 '한국어교육능력 모의 시험'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하였다.

일반 교원은 물론 한국어 교원으로서도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번 인식 조사 결과 현직 교원들의 생각하는 것과 실제교육 활동 간에 간격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시 말해서, 현직 한국어 교원들은 온라인 비디오나 앱 및 콘텐츠를 활용하여 자기 계발을 한다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수법과 한국어 지식에 대한 욕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식 조사에서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수료 여부를 물어본 결과 63.4% (45명)가 미수료, 36.6%(26명)가 수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본 양성과정에 대해 들어본 적이 별로 없고, 양성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잘 제공되지 않은 것이었다. 즉, 한국에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한국어 양성과정을 수료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몽골과 같은 국외에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과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대조적이다.

현직 교원들의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 현황을 살펴보면 1급이 1명(1%), 2급이 6명(9%), 3급이 3명(4%)이었다. 나머지 61명(86%)은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 취득자 10명 중 5명은 한국인 교원이고, 5명은 몽골인 교원이었다. 이것은 현직 교원들 중 비원어민 한국어 교원의 자격증 취득이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현직 한국어 교원 40명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능력검정(2021년 기준)' 모의시험을 실시한 결과 60% 이상의 점수를 받은 응시자가 5~6명에 불과했다. 그 이유는 시험 내용이 어려웠고,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을 미리 수강하거나 시험 준비를 잘하지 못해서인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의 교육 현장 기여도라든가 그 필요성을 높이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첫째, 몽골의 한국어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을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여러 교육 기관들과 협력하여 현지 맞춤형 양성과정을 개발 운영해야 한다.

둘째,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양성과정은 한국어학, 일반 언어학과 응용언어학, 그리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 한국문화, 한국어 교육실습 등 5영역을 걸쳐 방대한 내용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을 120시간에 이수하여 한국어교원능력검정시험을 본다는 것이 비원어민 교원에 있어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에 비원어민 한국어 교원의 경우 한번의 교육과정을 통해 한국어 교육 지식과 능력을 키울 수 없으므로 정기적이며 효율적인 교육과정을 설계 및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모의시험 재점 결과 현직 교원들의 한국어교육능력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는데,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않더라도 다양한 연수회나 교육 활동을 통해 현지 교원들과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여 한국어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본 요약문은 성신-임명섭 한국학연구소에서 지원한 한국학 연구과제 (성비락, 「몽골 한국어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 방안 연구」, 2021.3.5~2022.3.4)의 연구결과물을 정리한 것임.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re-education of incumbent Korean language teachers in Mongolia and Mock Test Analysis Results

Sainbilegt.D*, Sarnai.B (NUM)

Since diplomatic relations were established in March 1990, Korea–Mongolia relations have actively progressed across all fields of society. At that time, the opening of a Korean language course at the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unde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can be said to be the beginning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Mongolia and since then,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Mongolia has been developed and advanced in various aspects such as faculty, curriculum, and textbooks. After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was established at the Department of Asian Studies at the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in 1991, Korean Studies at the Department of Asian Culture at the University of Humanities (1992), the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at City Ulaanbaatar University (1994), Korean language courses at the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at International Ulaanbaatar University (1995), and Korean language curriculum at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Studies at Orkhon University (1998).

Since 2000, the number of universities teaching Korean has continued to increase, and the number of Korean language institutes has also increased. In Ulaanbaatar, Department of Oriental Languages and Literature at Mongoli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00),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at Mongolian Korean Polytechnical College(2001),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at Mongol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2002), Korean Language Curriculum in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Exchange at Mongolian National University (2004), Department of Foreign Languages at Engh Erchilung University (2005), Department of Asian Languages at Ikh Zasag International University (2005), and Korean language curriculum in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t Huree University (2009) were opened. In the provinces, Korean language education began at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t Darhang University (2003) and the College of Foreign Languages at Heald University (2007).

There are three main types of local Korean language curriculum: 1) Korean language curriculum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2) Korean language curriculum in national or private universities, and 3) curriculum in language schools including Sejong Institute. A total of six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nd 13 universities are now operating Korean language courses. The number of students studying Korean in beginner and intermediate courses at language institutes as well as students learning Korean through degree courses at Mongolian universities continues to increase. Currently, 650 to 700 students are learning Korean as a degree course at Mongolian University, and it is estimated that 8,818 learners are learning non-degree courses, that

* Sainbilegt Dashdorj,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Korean Studies Professor.

is, university elective courses,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Sejong Institutes, and general language schools. On the other hand, the number of teachers teaching Korean at local educational institutions is about 150. Among them, 87 non-native teachers were surveyed. (As of November 2021). Most of these faculty members have studied abroad after graduating from graduate school or majored in linguistics, education, and Korean studies at Mongolian University, and there are relatively more Mongolian Korean teachers than Korean teachers.

1. As a general teacher as well as a Korean language teacher, it is appropriate to engage in various activities to improve professionalism, but as a result of this perception survey,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gap between what local teachers think and actual education activities. In other words,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high demand for Korean language teaching methods and Korean language knowledge.

2. In the survey, when asked whether they had completed the Korean language teaching training course, 63.4% (45 people) did not complete it, and 36.6% (26 people) completed it. One of the reasons for not completing the training course was that they hadn't heard much about the training course, and even the opportunity to complete it was not well provided.

3. Looking at the status of current teachers obtaining Korean language teacher certificates, there were 1 (1%) in the first grade, 6 (9%) in the second grade, and 3 (4%) in the third grade. The remaining 61 (86%) did not acquire Korean language teacher certificates. Five out of 10 certified teachers were Korean teachers, and five were Mongolian teachers. This means that it is difficult for non-native Korean language teachers among incumbent teachers to obtain certificates.

4. In fact, only five to six applicants received more than 60% of the scores as a result of conducting a mock test of the 'Korean Language Teaching Proficiency Test (as of 2021)' for 40 incumbent Korean language teachers. It is believed that the contents of the test were difficult, and it was because they had not taken the Korean language teacher training course in advance or had not prepared well for the test.

Lastly, we highly appreciate the contribution and necessity of the Korean language teacher training course to the education field and would like to suggest the following opinions.

First, in order to improve the professionalism of Korean language teachers in Mongolia, the Korean language teacher training course should be systematically developed.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operate customized training courses in cooperation with various educational institutions.

Second, the training course for acquiring Korean language teacher qualifications consists of a vast amount of content covering five areas: Korean language, general linguistics, applied linguistics, Korean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Korean culture, and Korean language teaching practice. It is very difficult for non-native teachers to complete these contents in 120 hours and take the Korean Language Teaching Proficiency Tes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sign and operate a regular and efficient curriculum because it is impossible for non-native Korean language teachers to develop their knowledge and skill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through a single curriculum.

Third, as a result of the mock test scoring, it was found that the current teachers lacked Korean language teaching skills. Even if it is not for acquiring a Korean language teacher certificate, it is necessary to improve Korean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by promoting exchanges and cooperation with local teachers through various workshops or educational activities.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내포문 이해도 평가 연구

(-명사절, 관형사절, 인용절을 중심으로-)

NGUYEN THI PHUONG THU*

본 연구에서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보다 높은 표현 능력이 필요하지만, 표현 능력 향상에 앞서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해 능력에 중점을 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Anderson & Nunan(2008)은 ‘왜 입력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입력은 언어 습득 엔진의 연료 역할을 하고, 초급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덜어 주며, 표현 영역에 모범이 되는 모델을 제공해 준다.’라고 답한다. 학습자들이 입력이 없는 백지상태에서는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다소의 입력이 있어야 자신의 의도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언어 습득 과정에서 입력은 중요한 요소이며 풍부한 입력을 위해서는 입력되는 내용의 이해가 먼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어 문장과 베트남어 문장 사이에서 나타나는 많은 차이점으로 인해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가 길고 복잡한 한국어 내포문을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베트남인 학습자가 한국어 내포문을 잘 인식하여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가를 조사하는 데에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베트남어 성분 내포문의 유형을 살펴보고 한국어 내포문과 베트남어 내포문이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이러한 차이가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내포문을 이해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후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내포문 인식 및 한국어 내포문 이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지를 작성해 다낭대학교-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평가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테스트 결과를 분석하여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명사절, 관형사절, 인용절에 대해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내포절 표지나 내포절 구조에 대한 지식은 부족함이 보인다. 특히 관형사절에 대한 인식이 다른 유형의 인용절보다 낮은 양상을 보였다. 이는 내포절 인식 확인 문항과 내포문 이해 확인 문항에 대한 학습자들 정답률과 답변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둘째, 학습자들이 길고 복잡한 내포문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길고 복잡한 내포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베트남인 학습자가 한국어 문장을 이해할 때 ‘문장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문제’, ‘내포절 표지를 인식하지 못 하는 문제’, ‘문장 성분, 문장 구조를 인식하지 못 하는 문제’등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학습자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겪는 원인은 내포절의 표지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내포문의 성분이나 구조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 다낭외국어대학교 교수

따라서 학습자가 내포문을 빠르고 정확히 인식 및 이해할 수 있도록 명사형 어미, 전성어미, 인용어미 등과 같은 내포절 표지에 대해 교수할 때 문장 구조 관련 지식과 문장 연결, 기능, 화용적 측면 등의 교수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테스트를 통해 베트남인 학습자가 한국어 내포문을 이해할 때 겪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향후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효과적으로 한국어 내포문을 이해하고, 학습자들의 실제 한국어 문장 사용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본 요약문은 성신-임명섭 한국학연구소에서 지원한 한국학 연구과제 (용웬 티 프영 투,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사동문 사용 양상에 관한 연구」, 2021.6.1~2022.5.31)의 연구결과물을 정리한 것임.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Vietnamese learners' understanding of Korean embedded sentence

- Focusing on substantive clause, adnominal relative clause, quotative
clause

NGUYEN THI PHUONG THU

The study aims to confirm that whether Vietnamese Korean learners can recognize Korean embedded sentences well and understand their meaning accurately or not. At typology, Korean is an agglutinative language and Vietnamese is an isolated language, so there are many syntactic differences between the two languages, such as word order, the existence of auxiliary, existence of embedded clause signs (ending). Up to now, however, most conducted studies on Vietnamese Korean learners have mainly focused on vocabulary and phonological. Therefore, by selecting the embedded sentence of Korean and Vietnamese, which have many differences in terms of syntax, this study provided a new approach in evaluating Vietnamese Korean learners' level of embedded sentences understanding.

First, this study set out to examine in detail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Vietnamese embedded sentences through their contrast, and then an evaluation test of embedded sentence comprehension ability was conducted on learners above the intermediate level.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Vietnamese learners were having difficulty understanding long and complex Korean embedded sentences. Problems such as 'the problem of not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sentences', 'the problem of not recognizing the embedded clause signs', and 'the problem of not recognizing the sentence constituents, and the sentence structure' occurred, and it was concluded that the degree of awareness of adnominal relative clause was lower than the other Korean embedded clauses. By giving suggestions on what problems of Vietnamese Korean language learners in understanding the Korean embedded sentence, this study provided an analysis of the causes and educational measures for them. By doing those, I strongly believe that the study will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enhancing the efficiency of learning Korean embedded sentences of Vietnamese Korean language learners.

본 연구소는 ‘한국 어문화와 세계사적 지평’이라는 주제로 22년 11월 18일, 인문융합연구소와 공동으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성신-임명섭 한국학연구소, 인문융합연구소 공동 심포지움

- 주제 : 한국 어문화와 세계사적 지평
- 일시 :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 오후 1시 ~ 6시
- 장소 : 성신여대 수정관 B동 1026호
- 공동주최: 성신-임명섭 한국학연구소, 인문융합연구소

성신-임명섭 한국학연구소, 인문융합연구소 심포지움 한국 어문화와 세계사적 지평

시 간	주 제	발표 / 토론
1:00 ~ 1:20	개회	사회: 정진현(건국대)
1:20 ~ 2:00	(발표1) 한국어 교육 현황과 발전 방향	발표: 장미경(성신여대) 토론: 방금단(청운대)
2:00 ~ 2:40	(발표2)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문화교육	발표: 이성희(총신대) 토론: 정슬아(성신여대)
2:40 ~ 3:20	(발표3) K-팝의 명암: 팬덤과 일반대중 사이	발표: 서민정(이화여대) 토론: 김예니(청운대)
3:20 ~ 3:30	중간 휴식	
3:30 ~ 4:10	(발표4) K-컬처 연구를 위한 한국어 빅데이터의 현황과 활용 방안	발표: 김일환(성신여대) 토론: 이상혁(한성대)
4:10 ~ 4:50	(발표5) 영국에서 본 한국학 강의	발표: 박민영(성신여대) 토론: 유임하(한체대)
4:50 ~ 5:30	(발표6) 한국문학 번역의 현황과 과제	발표: 곽효환(한국문학번역원) 토론: 강진호(성신여대)
5:30 ~ 6:00	전체 토론	사회: 강혜선(성신여대)

◆ 성신-임명섭 한국학연구소는 학술연구비 지원사업계획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연구비를 지원합니다.

가. 지원자격 및 신청 조건

- 재외 한국학 기관(대학 및 연구소) 소속 교원
- 재외 한국학 연구원과 공동연구 수행 국내 교원

나. 신청기간 : 2023.02.01. ~ 2024.03.30.

다. 연구기간 : 2023.04.01. ~ 2024.03.30.(1년)

라. 신청서 양식 : 본 연구소 홈페이지 참조

(<https://www.sungshin.ac.kr/shks/index.do>)

마. 신청방법 : 신청서(연구계획서) 작성 후 메일 송부 (shks@sungshin.ac.kr)

바. 연구비 : 오백만 원 내외

◆ Research grant application guide

Sungshin-Lim Myungsub Korean Studies Research Center supports research funds as follows in accordance with the academic research fund support project plan.

A. Eligibility

- Faculty members affiliated with overseas Korean studies institutes (universities and research centers)
- Domestic faculty members conducting joint research with overseas Korean studies researchers

B. Application period : 2023.02.01. ~ 2024.03.30.

C. Research period : 2023.04.01. ~ 2024.03.30.(1year)

D. Application form : Refer to the institute's website

E. How to apply : Fill out the application (research plan) and send it by e-mail (shks@sungshin.ac.kr)

F. Research expenses : around KRW 5,000,000



과거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선진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듯이, 이제는 반대로
우리나라를 선망하는 나라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작지만 강한 콘텐츠로 세계 여러 나라에
한국의 참모습을 알리고,
한국어를 통해 꿈을 실현하는 글로벌 인재들을
지원하는 연구소가 되고자 한다.

주소 (02844)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34다길 2

수정관 B-718호 ☎ 02-920-7992

홈페이지 <https://www.sungshin.ac.kr/shks/index.do>